

‘빌(어)먹다’, ‘잡(아)쥐다’와 같이 생략된 어미가 상정되기 때문에 비통사적이라고 하지만 국어의 통사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의 합성어를 살펴보자.

(19) 핫빔, 밭바당, 미헛쥐

나막신, 아랑곳, 달걀, 쇠고기

(19)에서 ‘핫빔’은 사이시옷이 들어 있고 ‘나막신’에는 ‘나모+신’ 사이에 사이시옷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악/악’ 형태소가 끼어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달걀’과 ‘쇠고기’에도 소유격조사 ‘-의’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합성어로 구성된 국어 어휘는 형태론적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들은 예외 없이 국어의 통사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고유어, 국어 어휘의 형태론적 유연성이요 형태 첨가성이다.

4. 한자어의 어휘적 특성

이제는 한자어의 어휘적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하여, 음운론적으로 국어 체계에 완벽하게 동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어휘의 다른 면은 한자어의 본고장인 중국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는 까닭은 첫째, 음운론적 동화 이외에도 합성어 만들기에서 고유어와 무리 없이 결합할 만큼 고유어와의 친화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며, 둘째, 중국어 문법에 따르면 어구로 해석되는 3음절 이상의 한자 성구들이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되는 현상 때문이다.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가 이질감 없이 합성어를 형성한 예를 보기로 하자.

(20) 밥床, 걸床, 藥밥, 洋담배, 色종이, 꼬마自動車, 窓살

위의 예들을 보면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가 되는 단어일 뿐, 고유어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합성어 결합 양상이 자연스럽다.

(21) ㄱ. 어차피(於此彼), 급기야(及其也), 심지어(甚至於), 별안간(暫眼間)

ㄴ. 동분서주(東奔西走), 금과옥조(金科玉條), 금의환향(錦衣還鄉),

무소부지(無所不知), 죽마고우(竹馬故友), 일거양득(一舉兩得)

(21-ㄱ)의 예들은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단일한 단어이요, 품사상으로
는 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문 문법에 충실하게 그 의미를 풀이한다
면 ‘어차피’는 ‘어떻든’이 아니라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의 뜻
으로 풀어야 하고 ‘급기야’는 “드디어”가 아니라 “이와 같은 지경에 이
르러서”라고 풀이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단일한 부사
로 취급될 뿐이며 또 그것이 이해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초래하지 않는
다. (21-ㄴ)의 예들도 그 뜻을 풀이하면 어구 내지는 문장으로 풀이하여야
겠지만 국어의 체계 안에서는 단지 하나의 명사 구실을 할 뿐이다.

한자어는 한자를 이해하고 그 어원을 분석하는 관점에 설 경우에는 한
문 문법의 간섭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한자를 모르는 경우
에는 한문 문법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감’이라는 개념이 ‘입학(入學)’으로 표현될 때 한문 문법을
아무리 무시하려 하여도 ‘입학’의 ‘학’이 ‘학교’의 ‘학’과 같음을 알게 되
고 결국 ‘입학’이 국어의 문법에는 맞지 않는 단어 만들기에 의해 형성된
단어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한자어 가운데에는 자연스러운 국어 어
순과는 다르게 결합된 단어의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
휘에 다음과 같은 것을 손꼽을 수 있다.

(22) ㄱ. 피난(避難), 살생(殺生), 방화(防火), 관광(觀光), 휴회(休會),

개의(開議)

ㄴ. 견탈(見奪), 소정(所定), 소위(所謂), 피침(被侵), 피살(被殺),

소회(所懷)

ㄷ. 물론(勿論), 불리(不利), 비리(非理), 무죄(無罪), 부결(否決),

막역(莫逆)

ㄹ. 회중(懷中), 상한(傷寒), 의외(意外), 망명(亡命), 피정(避靜),

대입(大入)

(22-ㄱ)은 목적(目的) 구성의 단어로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에서는 ‘난을
피함’, ‘생물을 죽임’, ‘불을 놓음’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된다. (22-ㄴ)은 피
동(被動) 구성으로 ‘빼앗음을 당함(빼앗김)’, ‘정한 대로’, ‘(세상에서) 일컫
는 것을 따르면’과 같은 해석을 해야 하고, (22-ㄷ)은 부정(否定) 구성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롭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등으로 모두 뒤에
있는 글자부터 해석을 요구하는 중국어(한문)의 통사 구조를 반영한다.
그리고 (22-ㄹ)은 생략(省略) 구성으로서 한문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들
은 조건 없이 암기하여야만 하는 단어들이다. ‘회중’은 ‘懷於身中(몸 안에
지님)’에서 줄어든 단어이고, ‘상한’은 ‘傷以寒(추위로 인하여 병을 얻음)’의
축약이다. ‘망명’은 ‘逃亡而求命(도망하여 목숨을 건짐)’의 뜻이지 글자대
로 ‘목숨을 망하게 함’이 아니며, ‘피정’은 ‘避世靜靈(속세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 영혼을 고요하게 함)’의 뜻이지 ‘고요한 곳을 피함’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한자어가 표면적으로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하나

의 단어 또는 명사 어근으로 취급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한자 고유의 특성인 단음절 표의문자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한자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일종의 단음절 형태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바로 이 점이 한자어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자어는 고유어와 대비하였을 때 의미론적으로 고유어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고유어와는 다른 의미 영역을 담당하면서 고유어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점이고, 둘째는 한자어의 만들어짐이 고유어와는 다른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대적인 단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로 한자어가 고유어와는 다른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 점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고유어가 일반 생활 어휘 또는 기초어휘를 담당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자어는 전문어휘, 특수어휘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한자어의 유입 초기부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어들은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통하여 물밀 듯이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일반 생활 어휘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한자어 없이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한자어의 독무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한자어의 세력은 조만간 일반 생활 어휘에까지 침투하여 한자어와 고유어가 짝을 이루는 동의어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자어는 존경 표현의 감정 가치를 지니는 점잖은 어휘가 되었고 고유어는 그와 반대로 상스럽고 교양 없는 표현이라는 통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것은 물론 조선 왕조의 신분 사회, 그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양반 사

대부들이었다. 요즈음에 와서 한자어가 반드시 존경 표현의 어휘는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으나 이미 사회의 공인 과정을 거친 상당수의 어휘가 한자어는 존대어이고 고유어는 비존대어로 통용되고 있다. 어른의 나이를 ‘춘추(春秋)’ 또는 ‘연세(年歲)’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로 한자어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쓰이다가 시대의 변화로 소멸되는 수가 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또 다른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든 한자어가 우연히 전 시대에 다른 목적, 다른 의미로 쓰이던 것일 수가 있다. 예컨대 ‘방송(放送)’은 조선 왕조 시대에는 “죄인을 석방함”의 뜻이요, ‘발명(發明)’은 “죄인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함”의 뜻이었다. 한자가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의미가 중첩됨으로써 다의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과학 정보에 필요한 새 단어를 한자로 만들고자 할 경우, ‘방송’이나 ‘발명’과 같은 시대별 의미 차이가 문제되지 않는가는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자어가 중국을 원초적인 발상지로 하여 형성된 어휘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자로 적히는 어휘라고 하여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자어는 크게 나누어 세 나라를 발상지로 한다. 첫째는 중국이고 둘째는 한국이며 셋째는 일본이다. 중국을 발상지로 하는 한자어는 다시 세 부류의 어휘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 고전 한문에서 단어로 자주 쓰이게 되어 일반어휘로

는 한자를 훈독(訓讀)하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모두 훈독하는 것들이다. ‘編物’을 ‘amimono’, ‘入口’를 ‘iriguci’, ‘組立’을 ‘kumitate’로 읽는다. 그러나 글자로 쓸 때에는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한자어가 되었다. 이것들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휘로 증명하는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어는 각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숫자상의 팽창을 계속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고유어의 세력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로 표기될 수 없을 정도로 귀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 | |
|---|-------------|
| (26) 한글월 : 原文 | 민알굴 : 本質 |
| 죽사리 : 生死 | 즈몬 : 千 |
| 겨르롭다 : 閑暇롭다 | 과그르다 : 過激하다 |
| 스맛알다 : 通達하다 | 바드랍다 : 危殆롭다 |
| 어위크다 : 寬大하다 | 마괴오다 : 證明하다 |
| (27) ㄹ람 : 江, 湖水 | 구실 : 税金 |
| 길, 길이 : 利子 | 누리, 뉘 : 世上 |
| 도섭 : 變化, 妖術 | 머귀 : 梧桐 |
| 즈름, 주름 : 居間, 仲介人 | 가멸다 : 富裕하다 |
| (28) 상냥(石疏黃), 대롱(竹筒), 승냉(熟冷), 영계(軟鷄), 동냥(動鈴), | |
| 차례(次第), 배웅(陪行), 조금(潮減), 누비(納衣), 방죽(防築), | |
| 호지부지(諱之秘之) | |

(26)의 예들은 고유어가 한자어의 세력에 밀려 완전히 소멸된 경우이고, (27)의 예들은 고유어의 생명이 아직 남아 있으나 거의 소멸의 위기를 맞은 것들이다. (28)은 한자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고유어처럼 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한자어는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고유어와 대립하여 고유어를 밀어내기도 하고 고유어의 모습으로 귀화의 길을 걸으면서 공존하고 있다.

5. 외래어의 어휘적 특성

국어 어휘의 세 번째 계열을 이루는 어휘군은 서양 여러 나라 언어를 기원으로 하는 외래어이다. 이들 외래어의 상당수가 영어로서 현대 과학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전문 분야의 용어들이다. 그러나 이들 외래어는 일본 식민지 기간 중에 일본어로 정착된 뒤에 국어 어휘 체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일본식 발음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예컨대 ‘컵(cup)’은 한 때 ‘고뿌’라고 발음되었었고 ‘드럼(drum)’은 ‘도라무’, ‘캔(can)’은 ‘깡’이라는 발음이 일반화되었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원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외래어 발음이 정착되었다. 이렇게 서양을 기원으로 하는 외래어는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두 번에 걸친 발음 정

착 과정을 입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언어 현상이 정치, 사회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들 서양 기원의 외래어는 대체로 특정 분야를 특정 언어가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음악 용어는 이탈리아어가 담당하였고 의학 분야는 독일어를 기원으로 했으며 미술 분야는 프랑스어를 기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외래어를 늘려 가는 창구를 영어 쪽으로만 열어 놓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더구나 식견이 모자라는 일부 인사들이 아직 외래어로 정착했다고 볼 수 없는 생소한 외국어(주로 영어)를 일상 회화나 문자 생활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외래어의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외래어는 점점 더 그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 외래어가 국어에서 모자라는 어휘를 보충해 주는 새로운 자원임에는 틀림없는 것인즉, 이들 외래어에 대해 지나친 경계심은 갖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외래어가 국어 어휘 체계에 흡수될 때에는 그것이 원래의 말에서 어떤 문법적 기능을 가진 것이건, 명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되어야 한다. 가령 ‘카무フラ즈(camouflage)’는 영어에서 명사와 동사의 두 가지 기능을 하지만 국어에서는 ‘카무フラ즈하다(겉보기 좋게 위장하다)’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 한편 이들 외래어가 2음절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을 때에는 2음절 축약어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은 ‘데모’로 줄었고, ‘포토그래피(photography)’는 ‘포토’로 줄여 쓰는 것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줄임말의 전통은 일본어에서 확립된 것인데 국어가 그러한 일본

어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외래어의 증가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현대 문명의 변화와 발전은 고유어나 한자어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1. 한자어와 외래어

어종의 구별

국어 어휘 중 본래부터 국어에 있었던 어휘를 고유어라 하고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와 국어의 일원이 된 것을 차용어(借用語, loan word)라 한다. 차용어에는 외래 요소인 한자어와 외래어가 포함된다. 차용어와 외래어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여 한자어를 외래어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자어를 외래어와 구별하여 양자가 함께 차용어의 하위 부류가 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하게 중국에서 차용한 말이라도 ‘국가(國家), 학교(學校), 공부(工夫)’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은 ‘한자어’라 부르고, ‘라조기(辣子鷄), 자장(炸醬), 쿵후(功夫)’와 같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말은 ‘외래어’로 보기로 한다. 둘 다 차용한 말이긴 하나 전자는 오래 전에 중국 문어를 통해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므로 우리는 이를 구별하여 한자어라 부른다. 반면 ‘라조기, 자장’ 등은 한국 한자음이 아닌 원어의 발음을 들여온 것이므로 서구 언어에서 차용된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외래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국어 어휘의 어종 구성을 말할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종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한자어가 다 차용된 것은 아니다. 한자어 중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온 것 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어도 있다. 예컨대,

‘감기(感氣), 삼촌(三寸)’과 같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합성된 단어들이고, 더욱이 ‘대지(垓地), 시가(媿家), 전답(田畓)’ 등의 ‘대(垓), 시(媿), 답(畓)’은 글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들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을 구별하여 ‘고유한자어’라 부르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한자어를 ‘외래한자어’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자어로 부르기로 한다. 이 점에서 한자어는 그 기원에 관계없이 한자로 표기되며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말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한자어 중에는 ‘귀화어(歸化語, naturalized word)’라 부르는 말들도 있다. 이에는 ‘배추(白菜), 무명(木綿)’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라조기’류와 비슷하나 우리말로 변용되어 본래의 어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원래의 어형에서 떨어져 대부분의 화자가 그 어원을 알기 어려우므로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외래어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다양하다. 외래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고유어와 대립시켜 다른 언어에서 우리말 속에 들어온 모든 어휘적 요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차용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라는 용어는 차용어 모두를 가리키지 않는다. 국어 어휘 구성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 체계로 파악하여 외래어는 차용어 중에서 한자어가 아닌 것만 가리킴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외래어는 외국어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논란이 되곤 한다. 먼저 좁은 의미의 외래어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ㄱ. 외국어에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 사용되어야 한다. 단어라야 한다(김민수, 1973:103~104).
- ㄴ. 서양으로부터 차용 귀화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근대 이후의 차용어(심재기, 1982:109).
- ㄷ.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외국어가 아니고 국어에 속한다(김세중, 1998:5~6).
- ㄹ. 외래어는 그 차용원이 대부분 외국어인 단어이다. 외래어 의식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말 문맥에서 한글로 적히거나 한글 자모로 대표되는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면 외래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흥빈, 2008:12~28).

외래어는 흔히 외국어와 구별하여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국어에 정착된 단어만을 일컫는다. 외래어는 국어의 일원이지만 외국어는 국어가 아니므로 순화 대상어가 되는 것이다. (1-ㄱ)의 ‘외래어’ 정의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 속에 정착되어 사용되는 단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는 ‘쓰임의 조건’과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동화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 기준을 실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정도 쓰여야 쓰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동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글라스, 노트,

키, 테이블’ 등은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국어 속에서 동화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를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라 하기도 어렵다. ‘색안경, 공책, 열쇠, 탁자’와 같은 대응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면서 공존하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화의 조건’이 외래어 정의에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ㄴ)은 근대 이후의 차용어만을 외래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대 이전의 외래어에는 주로 중국에서 범어를 음역한 ‘미륵(彌勒), 보리(菩提), 보살(菩薩)’과 같은 차용어나 고려시대 몽고어로부터 들어온 관직명, 말, 매, 군사 등에 관한 차용어가 해당된다. 대표적인 몽고어 차용어로 ‘아질게 말(<아질게 말 兒馬), 가라말(<가라말 黑馬), 보라매(秋鷹), 고도리(模頭)’ 등이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차용한 ‘먹, 상투, 모시, 비단, 무명’ 등의 예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들은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기 는 하나 원어의 발음과 멀어져서 화자들이 외래어로 인식하기 힘든 예들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예들이 실질적으로 ‘외래어’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대 이후의 차용어만을 외래어 정의에 포함시킨 것이다.

(1ㄷ)도 (1ㄱ)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외래어를 외국어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1ㄴ)은 “차용원이 외국어인 단어로 한글로 적히거나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는 것”을 모두 ‘외래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외래어를 외국어와 구별하여 국어에 속하는 예만을 포함시키던 기존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정의이다. 사실 외래어와 외국어를 엄격히

구별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국어에 동화되어 국어화한 예들은 외래어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아직 굳어지지 않은 예들은 외국어라고 할 때 이들은 정도상의 차이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2) ㄱ. 라디오(radio), 초콜릿(chocolate), 소파(sofa), 젤리(jelly),

주스(juice), 쿠션(cushion), 가스(gas), 버스(bus),

비스킷(biscuit), 뷔페(buffet), 토너(toner)

ㄴ. 갭(gap), 배터리(battery), 버튼(button), 보스(boss),

개그맨(gagman), 팬(fan), 패션(fashion), 인터뷰(interview),

샘플(sample)

ㄷ. 슬림(slim), 콘셉트(concept), 사이트(site), 가든(garden)

(2ㄱ)과 (2ㄴ)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외래어의 예이다. (2ㄱ)은 순화어가 올라있지 않아 국어화된 전형적인 외래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는 것이다. (2ㄴ)은 ‘간격/차이, 건전지, 단추/누름쇠, 우두머리, 익살꾼, 애호가, 옷맵시/최신 유행, 면접/회견, 본보기/표본’ 등과 같이 순화어가 올라 있는 예로, 외래어 대신 순화어를 쓸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그맨’ 대신 순화어인 ‘익살꾼’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외래어와 순화어가 공존한다는 것은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외래어와 유의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2ㄷ)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이다. 그렇다면 (2ㄱ)은

외래어로, (2ㄴ, ㄷ)은 외국어로 보아야 할 예들인가? 어디까지를 외래어로, 또는 외국어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2ㄴ)에 해당하는 순화어로 한자어나 고유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해당 외래어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버튼’의 경우 ‘버튼을 채우다’에서는 ‘단추’로 순화하고, ‘버튼을 누르다’에서는 ‘누름쇠’로 순화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단추’가 우세하게 사용되지만 후자의 경우 ‘누름쇠’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버튼’을 쓴다. 국어 어휘로서 ‘단추’와 ‘버튼’은 의미 영역이 나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ㄷ)의 예도 이에 해당하는 대역어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들과 외래어는 의미 차이를 가지면서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최근에 들어온 외래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국어 어휘로 자리 잡을지는 알 수 없지만 국어 문장 속에 쓰인 모든 예들이 잠재적인 외래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 문교부 고시)은 최근에 외국에서 바로 수용되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말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외래어 표기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외래어의 어형을 통일시켜 국민들에게 표준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각국의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처럼 갓 들어온 인명도 외래어 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갓 들어온 외국의 인명, 지명 등을 외래어에 포함시킬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개념을 가장 폭넓게 생각한다면 외래어와 외국어가 고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외국어 어휘를 쓴다면 이들은 이미 외래어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뉴스에 새로운 외국어 단어가 사용된다면 이는 당장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들이 완전한 국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여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외래어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단순히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외래어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한자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래어라고 해서 모두 다 외국어에서 차용된 것은 아니다. ‘핸드폰(handphone), 스키니진(skinny jean), 핸드마사지(handmassage)’처럼 한국에서 합성된 외래어도 있다. 이와 함께 단어와 단어의 합성이 아닌 ‘유티즌(utizen), 넷포터(netporter), 셀카(selca), 헬스로빅(healthrobic)’과 같이 단어보다 더 작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많은 혼성어들은 국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외래어에 속한다.

국어 어휘의 어종 구별을 이와 같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종 체계로 파악하는 데에는 아직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국어 어휘 가운데에는 이 세 어종의 어느 하나로 명쾌하게 분류될 수 없는, 이른바 ‘혼종어(hybrid)’가 있다. 혼종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어종, 즉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밥상(床), 떡케이크(-cake), 식빵(食 <포> pāo), 건빵(乾 <포> pāo)’ 등의 예가 해당된다. 이는 국어 어종 구별을 실제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이다.

또한 국어 어휘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별하는 것이 역

사적 관점이 아닌 공시적 관점에서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종의 구별은 어휘 계통을 따지는 것이므로 국어 어휘사를 서술하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과제가 될 것이다. 공시적인 관점에서도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종에 대한 지식이 화자의 언어능력의 일부를 구성하느냐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국어에 적용되는 몇몇 음운현상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구별하여 달리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음운현상이 어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단어의 어종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 (3) ㄱ. 남녀(男女), 손녀(孫女), 자녀(子女), 처녀(處女), 숙녀(淑女)
 ㄱ. 여성(女性), 여인(女人), 여학생(女學生), 여자(女子)
 ㄴ. 거래(去來), 미래(未來), 본래(本來), 원래(元來), 유래(由來), 전래(傳來)
 ㄴ. 내년(來年), 내방(來訪), 내왕(來往), 내일(來日), 내한(來韓)
 ㄷ. 논리(論理), 도리(道理), 수리(數理), 윤리(倫理), 진리(真理)
 ㄷ. 이념(理念), 이론(理論), 이상(理想), 이성(理性), 이치(理致)

- (4) ㄱ. 라디오(radio), 로켓(rocket), 로봇(robot), 리듬(rhythm), 리모컨(remote control), 린스(rinse), 립스틱(lipstick), 링(ring), 류머티즘(rheumatism), 레몬(lemon), 랑데부(rendez-vous), 라틴(latin), 러닝셔츠(running shirts), 루다(중 旅大), 릴리프(Lully), 랠리(rally)

ㄴ. 뉴스(news), 뉴욕(New York), 니켈(nickel), 니트(knit)

- (5) ㄱ. 구인란(求人欄), 광고란(廣告欄), 연예란(演藝欄),

기입란(記入欄), 작품란(作品欄)

ㄴ. 가십란(gossip欄), 모암난(—欄), 어린이난(—欄)

(3ㄱ)은 한자 ‘녀(女)’가 비어두인 (3ㄱ)의 예와 달리 어두에 올 때 ‘여’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3ㄴ, ㄷ)에서도 ‘래(來)’가 어두에 오면 두음법칙에 따라 ‘내’로 바뀐다. (3ㄷ, ㄷ)은 ‘리(理)’가 어두에서 ‘이’로 ‘ㄹ’이 탈락된다. ‘ㄴ,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어두에서 탈락하거나 ‘ㄴ’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4)는 이러한 두음법칙이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 어휘 중 초성이 ‘ㄹ’로 시작하는 단어는 외래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4ㄴ)은 어두 음절이 ‘냐, 뉴, 니’ 등으로 시작하는 외래어로 그 수효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들도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어종에 따라 다르다. 더구나 ‘뤼, 뵐’ 등의 음절 구조는 외래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절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에는 타이어와 베트남어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ㅍ, ㅌ, ㅃ’과 같은 된소리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국어 어휘 체계에서 외래어가 한자어나 고

유어와 구별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5)는 동일한 한자 ‘란(欄)’을 한자어 뒤에서는 (5ㄱ)의 ‘구인란’과 같이 ‘란’으로 적고, 외래어나 고유어 뒤에서는 (5ㄴ)의 ‘가십난, 모임난’과 같이 ‘난’으로 적는 것을 보여준다. (5ㄱ)처럼 같은 어종인 한자어끼리의 결합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5ㄴ)처럼 다른 어종이 결합한 혼종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이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구인’과 ‘란’ 사이에는 형태소 경계가 있고, 비한자어인 ‘가십, 모임’과 ‘난’ 사이에는 단어 경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들이 단지 표기법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행어의 어종이 ‘란’의 표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몇몇 수사나 수관형사의 경우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6) ㄱ. 한 사람/*한 인(人), 세 사람/세 인(人), 다섯 사람/*다섯 인(人)

ㄴ. 일인(一人)/*일(一) 사람, 삼인(三人)/*삼(三) 사람,

오인(五人)/*오(五) 사람

ㄷ. 옷 한 벌/*일 벌, 두 벌/*이 벌, 나무 세 그루/*삼 그루,

쌀 두 말/*이 말

ㄹ. 일(一) 년(年), 일(一) 개월(個月), 십(十) 리(里)/학생 한 명(名),

사과 한 개(個), 잉크 세 병(瓶)

ㅁ. 이(二) 킬로그램/*두 킬로그램, 오(五) 미터/*다섯 미터,

일(一) 달러 오십(五十) 센트/*한 달러 쉰 센트

(6ㄱ)과 같이 ‘사람’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후행하면 고유어 관형사 및 수사 ‘한, 세, 다섯’ 등이 결합하고, (6ㄴ)과 같이 한자어 수사 ‘일(一), 삼(三), 오(五)’는 한자어 ‘인(人)’과 결합하여 쓰인다. 마찬가지로 (6ㄷ)은 고유어 의존명사 ‘벌, 그루, 말’ 등이 고유어 수관형사 ‘한, 두, 세’와는 결합하여도 한자어 수사 ‘일(一), 이(二), 삼(三)’ 등과는 결합하여 쓰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6ㄹ)은 한자어 의존명사 ‘년, 개월, 리’ 등이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일부 한자어 의존명사 ‘명, 개, 병’ 등이 고유어 수관형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음을 보인다. 한자어 의존명사의 종류에 따라 고유어 또는 한자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다. 이는 한자어의 국어화 정도에 따라, 즉 고유어와 거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6ㅁ)은 외래어 계통의 단위성 의존명사가 올 경우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 수사나 수관형사가 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후행하는 의존명사의 어종에 따라 앞에 오는 수관형사의 어종이 제약되는 현상으로 [±Native], [±Foreign] 등의 형태 자질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약도 공식적 관점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구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어휘 구성의 변화

흔히 언어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화한다는 말을 하지만 언어 변화 중 가장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것은 어휘가 아닐까 한다. 국어 어휘의 역사적 변천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고대국어의 특징은 국어 어휘의 순수성에 있었으나 한자의 차용으로 고유어가 한자어와 대립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한자의 차용은 초기에 향찰식 표기 등을 낳았지만 전기중세국어 시기에 이르면 상류계급은 우리말을 구어로 사용하고, 한문을 문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생활을 하게 된다. 향가와 고려가요에 쓰인 어휘를 보면 고유어 대 한자어의 비율이 80:20 정도로 나타난다. 문학 작품에 고유어가 많이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어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국어 어휘로 정착된 한자어로 다음 예가 있다.

- (7) ㄱ. 가구(家口), 가정(家庭), 고독(孤獨), 기회(機會), 개조(改造),
결혼(結婚), 덕망(德望), 구원(救援), 여유(餘裕), 출입(出入),
용감(勇敢), 정성(精誠), 정직(正直), 거래(去來)
ㄴ. 건달파(乾達婆), 여래(如來), 고행(苦行), 번뇌(煩惱), 업장(業障),
인연(因緣)

(7-1)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사서에 나오고 중국의 사서에도 나오는 한자어들로 문헌의 수입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7-2)은 불교 관련 한자어인데 향가에 나타나는 예로 그 당시에도 일

반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자어이다.

후기중세국어에 와서는 한자어가 상당히 일반화되었는데 한자어와 고유어가 어휘 분량상으로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명·청으로부터 중국의 생활 언어인 백화문(白話文)에 쓰이는 새로운 부류의 한자어까지 받아들임으로써 한자어의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들 백화계 한자어는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등에 수록된 어휘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었다.

- (8) 보박(寶貝), 탕건(唐巾), 상투(上頭), 비단(匹段), 무명(木棉), 다홍(大紅),
사탕(砂糖), 빙칙(白案)

(8)의 백화계 한자어는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한자음으로 읽히는 한자어와는 발음상으로 다르다. 이들은 중국어에서 직접 차용하였으므로 거의 중국 원음에 가깝게 발음되어 중국의 근대 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이 단어들이 차용된 시기에 이들은 한자어보다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어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어휘는 현대국어에서 ‘보배, 탕건, 상투, 비단, 무명, 다홍, 사탕, 배추’ 등으로 나타난다. 원래의 어형에서 멀어지거나 하여 고유어처럼 인식하게 된 단어들이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어 어휘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한자어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도 많이 차용되었다. 19세기 말엽부터는 서양 문물과의 접촉이 시작되고 일본에서의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자어가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일본의 식민통치기간에

많은 일본어 어휘 및 일본식 외래어가 국어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려는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일부 예만 살아남고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9) ㄱ. 벤또→도시락, 스메키리→손톱깎기, 노가다→막노동,

에리→옷깃, 다쿠앙→단무지, 덴뿌라→튀김, 소데나시→민소매,

시다→조수, 후루꾸→앵터리

ㄴ. 빵꾸→펑크(< puncture), 마후라→머플러(muffler),

런닝구→러닝셔츠(running shirts), 도라꾸→트럭(truck),

스게또→스케이트(skate), 사라다→샐러드(salad)

(9ㄱ)은 일본어가 고유어나 한자어로 순화된 예이다. (9ㄴ)은 일본어를 거쳐 받아들이면서 일본어식으로 발음하다가 원어의 발음에 충실하게 바뀐 예이다.

해방 이후 국어 어휘는 서구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면서 서구어로부터 들어온 외래어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오늘날까지 외래어는 주로 영어로부터의 차용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영어 차용어는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10) ㄱ. 바나나(banana), 벤치(bench), 버튼(button), 덤핑(dumping),

뉴스(news), 디스크(disco), 딜레마(dilemma), 가이드(guide),

가십(gossip), 개그맨(gagman), 기타(guitar), 퀴즈(quiz),

시리즈(series), 퓨즈(fuse), 골(goal)

ㄴ. 포맷(format), 인터뷰(interview), 스매시(smash), 서비스(service),

세미나(seminar), 마사지(massage), 노크(knock)

ㄷ. 스마트(smart), 슬림(slim), 드레시(dressy), 스피디(speedy),

핸섬(handsome), 터프(tough), 보이시(boyish)

(10ㄱ)에 보는 바와 같이 차용어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명사이다. 원어에서 품사가 명사인 경우는 국어에 유입되면서 아무 변화 없이 그 형태 그대로 명사로 쓰인다. (10ㄴ)은 국어에서 명사로 쓰이지만 서술성이 있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도 쓰이는 예이다. 이들은 주로 원어에서 명사와 동사의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예들로 국어에 들어오면서 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다시 ‘하다’를 결합하여 동사로 쓰인다. (10ㄷ)은 영어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예로 국어에서는 ‘하다’와 결합하여야만 형용사로 쓰이므로 실은 단어가 아니라 어근(root)이다. ‘스마트, 슬림’ 자체로는 자립적인 명사의 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차용어가 국어에 유입될 때 원어의 품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겠다.

어휘 구성의 비율

현대국어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흔히 한자어가 60%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대상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사전의 통계 자료인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구어 자료인지 문어 자료인지에 따라 어종별 어휘 구성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먼저 사전을 대상으로 한 어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1·사전 표제어의 어종별 분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계
우리말큰사전	74,612(45.46%)	85,527(52.11%)	3,986(2.43%)	164,125
국어대사전	62,912(24.4%)	178,745(69.32%)	16,196(6.28%)	257,853
표준국어대사전	111,156(25.2%)	252,755(57.3%)	24,050(5.6%)	387,453

『우리말 큰사전』(1957, 한글학회)과 『국어대사전』(1961, 이회승 편)은 한자어의 비율이 각각 52.11%와 69.32%로 수치의 차이가 꽤 큰 편이다(김광해, 1993:112). 『표준국어대사전』의 통계는 고유어 25.2%, 한자어 57.3%, 외래어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다른 어종이 결합한 혼종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로 혼종어 가운데 한자어+고유어 결합이 8.3%에 이른다(이운영, 2002:50-51). 세 사전에서 모두 한자어의 비율이 50~60% 대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또 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남호(2002:481)는 150만 어절의 자료를 토대로 빈도 조사를 한 바 있다. 다음 표2에서 ‘단어 총수’는 중복해서 나타난 단어들을 1로 계산하여 단어들의 개수를 합산한 것으로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표3에서 ‘단어 총수’는 출현빈도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고유어의 비율이 문학, 대본, 구어 자료에서 높게 나타나고 한자어의 비율은 교양, 신문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체 비율은 사전과 유사하게 한자어가 51.8%, 고유어가 24.05% 정도를 차지하지만 분야별로 그 비율의 차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대본에서는 한자어보다 고유어의 비율이 더 높고 교양, 신문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훨씬 높다.²

표2 단어 총수에서의 어종별 분포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전체
고유어	37.67	35.95	22.25	40.16	17.3	28.26	56.88	38.46	41.44	24.05
한자어	41.69	43.13	54.08	37.93	57.74	47.15	24.52	41.26	39.19	51.8
외래어	2.89	2.72	3.06	3.17	4.94	5.28	4.36	5.2	2.53	4.74

이와 비교하여 다음 표3의 단어 총수에서의 어종별 비율은 또 다른 미를 지닌다. 즉 출현 빈도를 계산했을 때는 전체 비율에서 고유어가 높

2 조남호(2002)에서 조사된 9개 분야 중 ‘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글들이고, ‘교재’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한국어 교재이다. ‘교과서’는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이고 일부 중학교 교과서가 포함되며, ‘문학’은 대부분이 소설이고 일부 동화를 포함한 것이다.

아 고유어 대 한자어의 비율이 54:35로 나타난다. 특히 교재, 문학, 대본, 구어 등에서 고유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신문만 예외적으로 한자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3·단어 총수에서의 어종별 분포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전체
고유어	67.12	58.25	44.64	71.43	34.35	54.04	78.49	73.56	69.93	54.11
한자어	24.78	30.99	42.34	20.01	52.02	33.57	13.89	19.29	22.29	34.67
외래어	1.25	1.08	1.64	1.07	2.89	3.31	1.91	1.74	1.52	1.96

표2의 단어 총수에서와 달리 표3의 단어 총수에서 고유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위 빈도 단어, 즉 반복해서 사용되는 횟수가 많은 단어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다음 표 4는 상위 빈도 100위까지 단어에서 어종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표4·상위 빈도 단어에서의 어종별 분포

	전체	교재	교과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기타
고유어	81	87	77	64	88	53	78	93	88	87
한자어	15	12	18	33	7	41	19	7	10	10
외래어	0	0	0	0	0	1	0	0	0	2

표4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 상위 빈도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많이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고유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격차는 ‘대본’에서 93:7로 가장 심하다. 앞의 표2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고유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신문’과 ‘교양’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줄었을 뿐이다.

전체 상위 빈도 단어 100개 중에서 고유어는 81개이고 한자어는 15개에 불과하며 외래어는 없고 나머지는 혼종어이다. 고유어 81개가 사용된 횟수를 모두 합하면 358,752개로 조사된 전체 단어 1,484,463개 중에서 24%의 비율을 차지한다. 조사된 단어의 수가 58,437개이므로 0.1%에 불과한 81개의 단어가 사용된 전체 단어의 24%를 차지하는 것이다.³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한자어가 더 많지만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고유어임을 알 수 있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고유어의 비율이 높고 사용 빈도가 낮을수록 한자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즉 고빈도어인 기본어휘에서는 고유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간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나 저빈도어인 전문 어휘 등에서는 한자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3 문교부(1956)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에 따르면 빈도 순위 100까지의 단어 중 한자어는 ‘연(年), 국(國), 등(等), 대(對)하다, 자기(自己), 중(中)’ 등 여섯 개에 불과하지만, 빈도순 901~1,000에서는 51%, 빈도순 2,401~2,500에서는 63%를 한자어가 차지한다.

2. 이중 어휘의 공존

유의어

국어 어휘 속에 존재하고 기원을 달리하는 어휘군들은 유의어의 대립 구조를 이루기에 적합하다. 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요소가 들어와 기존 단어와 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의 관계를 차용적 유의 관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유의 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차용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Hockett(1965:402-407)는 외래어 차용의 동기에 필요 동기(need filling motive)와 함께 과시 동기(prestige motive)가 있음을 말하였다. 차용적 유의어는 이 가운데 특히 과시 동기에 의한 차용의 예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고유어보다 문화적으로 상위 언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겠다.

고유어와 한자어는 많은 유의어쌍을 갖는다. 이들은 유의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한 쪽이 소멸하기도 하고 의미 분화를 일으키면서 서로 공존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유의 관계를 형성하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경쟁하다가 고유어가 소멸된 대표적인 예로 (11-ㄱ)을 들 수 있다. ‘뫼, 천량, 지계’ 등의 고유어는 소멸하고 ‘산, 재물, 문’과 같은 한자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국어 어휘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이처럼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11) ㄱ. 뫼-산(山), 천량-재물(財物), 지계-문(門), 잣-성(城), 항짓-주인(主人), 죽사리-생사(生死), 가멀다-부유(富裕)하다, 벽툼-벽(壁)
 ㄴ. 시골-촌(村), 문득-홀연(忽然)히, 손수-친(親)히

이에 비해 (11-ㄴ)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하는 예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의미 영역이 분화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하고 있는 예들이다. ‘시골’과 ‘촌(村)’의 경우 ‘촌사람/시골 사람’ 등에서는 같이 쓰일 수 있으나 ‘촌’이 “마을, 지역”의 의미를 지닌 ‘이번에 우리 촌/*시골에는, 대학촌/*대학시골, 선수촌/*선수시골’ 등의 예에서는 ‘시골’이 쓰일 수 없다.

다음 (12)의 예문은 ‘문득’과 ‘홀연히’가 공유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의미 영역이 분화된 것을 보여준다. (12-ㄱ)과 달리 (12-ㄴ)에서는 ‘홀연히’만 쓰이고 ‘문득’은 쓰이기 어려워 구체적인 문맥에서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면서 의미 영역을 분담하게 된다.

- (12) ㄱ. 문득/홀연히 깨닫다, 문득/홀연히 고개를 돌리다
 ㄴ. *문득/홀연히 떠나다, *문득/홀연히 종적을 감추다

역사적으로는 한자 ‘홀(忽)’을 “문득”으로 번역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들이 동의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남성우, 2006:279).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어 ‘문득’과 한자어 ‘홀연히’가 모두 한자 [忽]에 대응된다. 이들은 “문득, 갑자기”의 뜻을 가진다.

- (13) ㄱ. 先生이 문득 소리를 ㄹ이 忽야 니르사디(安定이 忽厲聲云)

〈번역소학9:27ㄱ〉

- ㄴ. 어름이 문득 절로 헤어더(氷忽自解 忽야) 〈번역소학9:25ㄱ〉

- ㄷ. 나조히 忽然히 놀이 제 지비 드리오나닐(忽有簪入其室)

〈속삼강행실도2ㄱ〉

다음 (14)에서 보는 ‘손수’와 ‘친(親)히’의 관계도 유사하다. (14ㄱ)은 ‘손수’와 ‘친히’가 모두 가능한 데 비해 (14ㄴ)에서는 “제 손으로 직접”이라는 좀더 한정된 뜻을 지닌 ‘손수’는 쓰이기 어렵다.

- (14) ㄱ. 아버지께서는 손수/친히 밥을 지으셨다.

- 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수/친히 찾아오셨다.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의 유의 관계는 문체나 격식의 차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고유어는 오래 전부터 구어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비격식적인 표현에 주로 사용되는 데 비해 한자어는 보다 격식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15) ㄱ. 아버지-부친(父親), 얼굴-안면(顔面), 일어나다-기침(起寢)하다

- ㄴ. 이걸 자네 부친/아버지께 전해 드리게.

- ㄷ. 옆집 영식이 아버지/*영식이 부친께서는 영식이와 잘 놀아주신다.

- ㄹ. 영식이 아버지/*영식이 부친, 오늘 언제 들어오시나요?

(15ㄱ)의 고유어 ‘아버지, 얼굴’은 한자어 ‘부친, 안면’보다 덜 격식적인 표현에 쓰인다. (15ㄴ)은 ‘아버지, 부친’이 다 가능하지만 ‘부친’을 쓰면 더 격식적인 표현으로 ‘하계’체 어미와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15ㄷ)은 비격식적인 문맥에서 ‘영식이 부친’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특히 영식이 어린 경우 ‘부친’보다 ‘아버지’가 적합하다. (15ㄹ)은 ‘아버지’는 호칭으로 쓰일 수 있지만 ‘부친’은 호칭으로 쓰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 (16) ㄱ. 이-차아, 집-댁, 술-약주

- ㄴ. 할머니의 차아/*이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

- ㄷ. 오늘 선생님 댁/*집으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16ㄱ)의 한자어 ‘차아, 댁, 약주’도 해당 고유어에 비해 더 격식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높임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16ㄴ, ㄷ)에서는 한자어 대신 고유어 ‘이’나 ‘집’을 쓸 경우 예외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분화적, 전문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고유어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데 비해 한자어는 한정적인 의미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 관계는 일대다 대응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래 (17)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어 ‘고치다’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선택 제약을 가지면서 그 적용 영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김광해, 1989:52-2).

(17) '고치다'에 대응하는 한자어

- ㄱ. 수리(修理)하다, 수선(修繕)하다: 건물을 수리하다/고치다
- ㄴ. 치료(治療)하다: 질병을 치료하다/고치다
- ㄷ. 교정(矯正)하다: 치아를 교정하다/²고치다
- ㄹ. 시정(是正)하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다/고치다
- ㅁ. 수정(修正)하다: 계획을 수정하다/고치다
- ㅂ. 개정(改正)하다: 법률을 개정하다/고치다
- ㅅ. 변경(變更)하다: 계획을 변경하다/고치다, 노선을 변경하다/²고치다
- ㅇ. 개혁(改革)하다: 세제를 개혁하다/고치다
- ㅈ. 교정(校正)하다: 원고를 교정하다/고치다

(17)의 한자어들은 거의 모든 사용 문맥에서 고유어 '고치다'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중 '교정(矯正), 시정(是正), 개정(改正)' 등은 해당 한자어들의 구성요소가 고유어 '바르다'에 대응하는 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자어의 의미 폭이 더 좁아지게 된다. 특히 (17ㄷ)의 '교정하다'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의미 폭이 넓은 고유어 '고치다'로 단순 대치하면 어색해진다. '치아를 교정하다' 대신 "치아를 고치다"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치아를 바르게 고치다'처럼 의미를 한정해야 한다. (17ㅅ)의 '노선을 변경하다'도 "노선을 고치다" 대신 '새롭게 바꾸어서 고치다' 정도로 한정하면 어느 정도 대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고유어 '고치다'의 의미 폭이 그만큼 넓은 것을 의미한다.

근대국어 이후 외래어가 늘기 전에는 국어의 유의 관계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이중 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외래어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국어 어휘의 유의어 양상도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점차 외래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한자어가 유의어 형성의 주된 구조를 이루게 되는 듯하다.

- (18) ㄱ. 열쇠-키(key), 목도리-머플러(muffler), 치마-스커트(skirt),
춤-댄스(dance), 단추-버튼(button)
- ㄴ. 면접(面接)/회견(會見)-인터뷰(interview), 할인(割引)-세일(sale),
시간(時間)-타임(time), 구호(口號)-슬로건(slogan),
예절(禮節)-에티켓(etiquette), 충격(衝擊)-쇼크(shock)
- ㄷ. 틈-간격(間隔)-갭(gap), 잔치-연회(宴會)-파티(party),
빛깔-색채(色彩)-칼라(color), 탈-가면(假面)-마스크(mask),
말미-휴가(休暇)-비캉스(〈프〉vacance),
계집-부인(夫人)-마담(〈프〉madame)

(18ㄱ)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예이고, (18ㄴ)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예이다. (18ㄷ)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어종별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갖는 예이다. 이들은 유사한 의미를 지녀 서로 대치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면서 공존하고 있다.

(18ㄱ)의 고유어 '열쇠'와 외래어 '키'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럼 보이지만 흔히 재래식 장롱의 경우는 ‘열쇠’라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키’라 한다. 그 대상이나 쓰임에 따라 약간씩 의미 영역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단추’와 ‘버튼’의 경우는 용법상의 차이가 더 분명하다. ‘옷의 단추를 달다’는 ‘옷의 *버튼을 달다’와 같이 ‘버튼’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18ㄴ)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유의 관계를 이루는 예로, ‘인터뷰’를 한자어 ‘면접/회견’으로 순화하였다. ‘인터뷰’는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와 같은 예에서는 “면접시험”의 의미를 갖고, ‘오늘 기자들과 인터뷰가 있다’와 같은 예에서는 “회견”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시민들과 인터뷰한 내용/목격자들을 인터뷰한 후에’ 등과 같은 예에서는 ‘면접’이나 ‘회견’으로 대체하여 쓰기 어려운 면이 있어 순화어와 의미 차이를 보인다.

(18ㄷ)의 ‘틈·간격·갭’의 경우도 ‘갭’을 고유어 ‘틈’이나 한자어 ‘간격’으로 순화하였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쓰인다. ‘틈·간격이 벌어지다’는 가능하지만 ‘학생들 틈/*간격/*갭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틈/*간격/*갭을 얻다’ 등의 예에서는 ‘간격’이나 ‘갭’이 쓰일 수 없다. ‘갭’은 “의견, 능력, 속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면서 ‘세대간의 갭/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크게 느껴지다/그녀와 나 사이에 갭이 생기다’ 등의 예에서 많이 쓰인다. 이들 예를 ‘간격’이나 ‘틈’으로 대체하여 쓸 경우 어감상의 차이를 갖게 된다. 마지막의 ‘계집·부인·마담’과 같은 경우는 의미 영역이 아주 분명하게 분화된 예에 속한다. ‘계집’은 고유어로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었고,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 되었다. ‘마담(madame)’은 “술집이나 다방, 보석 가게 따위의 여주인”을 의미하게 되었다. 고유어 ‘계집’이 역사적으로 낮추는 말이 아니었으나 [+비해]의 의미 자질을 갖게 되면서 의미가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담’은 프랑스어에서 ‘부인’을 의미하지만 국어에서 특정한 직업의 여자 주인을 의미하게 되면서 분명한 의미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의미 변화를 겪으면서 의미 영역을 분담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국어 어휘의 공존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동의중복

동의중복은 주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지 못하여 불필요하거나 잉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현상은 언어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른바 말하기나 글쓰기 오용 사례의 한 부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국어에서도 폭넓게 나타난다. ‘여름철, 처갓집’과 같이 단어 층위에서만뿐만 아니라 ‘미리 예견(豫見)하다, 배에 승선(乘船)하다’와 같이 통사적 층위에서도 활발히 출현한다. 또한 이들 중에는 의미가 변화하여 중복어가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예들이 있어 오용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면도(面刀)칼’에서 ‘칼’은 ‘도(刀)’와 동의중복된 요소이지만 ‘면도’가 “면도하

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면서 의미적으로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손수건’에서도 ‘수건’에 ‘손’을 뜻하는 ‘수(手)’가 있지만 ‘수건’의 지시 범위가 더 넓어 ‘손’을 잉여적인 요소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현상은 해당 단어에 대해 화자의 인식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처갓집, 역전 앞’ 등의 표현은 화자가 한자어의 구성 성분을 분석적으로 인식하여 그 뜻을 따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의 하나이다. 이 현상은 단어 의미의 재구조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공존 양상과도 관련된다.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들이 의미 분화를 일으키면서 공존하게 되는 어휘 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휘 계통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의중복은 같은 어종(語種)보다는 다른 어종의 어휘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사정은 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어 어휘 중에서 이종(異種)의 어휘, 즉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고유어 사이의 중복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질적인 어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어와 고유어가 중복되는 경우(‘뜸새’)나 한자어와 한자어가 중복되는(‘국제간’ 등) 동종 어휘 간의 중복도 없지 않다. 이러한 예는 이종 어휘 간의 동의중복보다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동의중복의 형성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어종별로 동의중복이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여 국어 어휘의 공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동의중복은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 한자어는 오래전에 국어에 유입된 차용어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국어 어휘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동의중복은 이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해당 한자어의 구성성분이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혼으로 동의중복되는 예들이 다수 발견된다. 2음절 한자어에 고유어가 중복되는 예는 아주 일반적이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 (19) 처갓(妻家)집, 약수(藥水)물, 한옥(韓屋)집, 철교(鐵橋)다리,
생일(生日)날, 철로(鐵路)길, 황토(黃土)흙, 계수(桂樹)나무,
삼월(三月)달, 호피(虎皮)가죽, 강촌(江村)마을, 대청(大廳)마루

(19)의 예들은 두 명사가 상하위어 관계를 형성하며 선행명사의 구성 요소가 해당 고유어로 중복된다. 즉 ‘처가’의 ‘가(家)’에 해당하는 고유어 ‘집’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 경우 ‘가’와 ‘집’의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동의중복이라 할 만하다. 이때 단순형 ‘처가’와 중복형 ‘처갓집’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특별히 지시적인 의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한 화자가 단순형 ‘처가’와 중복형 ‘처갓집’을 둘 다 쓴다면 ‘처갓집’이 좀더 구어적인 특징을 지니는 듯하다.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두 단어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동의중복은 주로 2음절 한자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2음절 한자어의 구성성분 중 한 요소가 중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음 예는 2음절 한자어 전체의 상위어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20)의 ‘동백’은 ‘나무’의 하위어로 상위어인 ‘나무’를 함의(entailment)한다. ‘동백’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지

만 ‘나무’라는 예측 가능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하여 썼으므로 넓은 의미의 동의중복에 속한다. 이 경우 ‘동백’과 ‘동백나무’가 유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20) 동백(冬栢)나무, 점심(點心)밥, 추석(秋夕)날, 두견(杜鵑)새,

신음(呻吟)소리

(21) ㄱ. 장미(薔薇)꽃

ㄴ. 국화(菊花)꽃, 무궁화(無窮花)꽃

(21)은 예 (19)와 예 (20)에서 보는 두 가지 중복 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단어형성의 유형상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의중복이 궁극적으로 같은 동기에 의해 형성된다는 동질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두 명사 ‘장미’와 ‘꽃’, ‘국화’와 ‘꽃’이 상하위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21-ㄱ)의 ‘장미꽃’은 (20)과 같은 부류로 ‘장미’ 안에 ‘꽃’과 같은 의미의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21-ㄴ)의 ‘국화꽃’과 ‘무궁화꽃’은 ‘화(花)’와 ‘꽃’이 같은 의미를 지녀 (19)의 중복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중복 유형이 다르더라도 ‘장미꽃’과 ‘국화꽃, 무궁화꽃’에서 ‘장미’는 ‘국화, 무궁화’ 등과 같은 패러다임 상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화자가 ‘국화, 무궁화’의 ‘화’를 ‘꽃’이라는 개별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화’도 ‘장미’와 동일하게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인식하고 그것의 ‘꽃’은 ‘국화꽃’으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장미 : 장미꽃 = 국화 : 국화

꽃’의 관계로 파악한다면 ‘장미, 국화’ 등은 식물의 부류 명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음 (22)와 같은 문맥에서 ‘장미’와 ‘국화’가 식물명과 그것의 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ㄱ. 식물일에 장미/국화를 심었다

ㄴ. 장미/국화 한 송이를 받았다.

(22-ㄱ)에서는 ‘장미, 국화’가 식물명을 의미하고 (22-ㄴ)에서는 그것의 꽃을 지칭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미’와 ‘장미꽃’, ‘국화’와 ‘국화꽃’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일한 의미로도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와 고유어 사이의 중복에서도 상하위어 관계가 형성된다. 고유어가 외래어를 부가 설명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면서 단순형과 중복형이 유의 관계를 이룬다.

(23) ㄱ. 뽀빠(〈일〉monpe)바지, 진(jean)바지, 팬탈롱(〈프〉pantalon)바지,

즈봉(〈프〉jupon)바지, 우동(〈일〉udon)국수, 판다(panda)곰,

레지(〈일〉reji)아가씨, 댄스(dance)춤

ㄴ. 모찌(〈일〉mochi)떡, 미소(〈일〉miso)된장(-醬)

(23-ㄱ)의 ‘뽀빠바지’에서 ‘뽀빠’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의 하나”로 바지의 한 종류이다. ‘뽀빠’와 ‘바지’는 상하위어로 ‘뽀빠’와 ‘뽀빠바지’가 유의어가 된다(‘뽀빠/뽀빠바지를 입고 일을 하고 있다’). ‘진바지,

관탈롱바지'도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 '즈봉바지'의 경우 '즈봉'이 "양복바지"만을 의미한다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즈봉'이 바지 전반을 의미하면 '즈봉'과 '바지', '즈봉바지'가 유의어가 된다.

(23ㄴ)의 '모찌떡'은 '모찌'가 일본어에서 떡이라는 뜻이므로 고유어 '떡'과 동의중복된 예이다. '모찌떡'을 '참쌀떡'으로 순화하였는데, 이는 '모찌떡'이 떡의 한 종류인 "참쌀떡"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의미가 같았던 '모찌'와 '떡'이 결합하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모찌'와 동의중복형 '모찌떡'이 유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한다. 결국 '모찌'의 의미가 국어에서 변화된 것이다. '미소된장'도 '미소'가 일본어에서 '된장'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동의중복형 '미소된장'은 일본식 된장을 뜻하게 되어 '미소'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미소국'과 '미소된장국'이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주로 선행 명사와 동의중복된 형태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하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동의중복 현상은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고유어처럼 이중 어휘 사이에 흔히 나타나 어휘가 공존하는 또 하나의 양상을 보여준다. 동종 어휘 간에 나타나는 동의중복으로 한자어에 한자어가 중복되는 다음의 예가 있다.

(24) ㄱ. 탄신-일(誕辰日), 시가-댁(娼家宅), 외가-댁(外家宅),

처가-댁(妻家宅)

ㄴ. 초가(草家)-집/*초가-댁, 한옥(韓屋)-집/*한옥-댁

ㄷ. 처갓(妻家)-집/처가-댁, 대갓(大家)-집/대가-댁

(24)의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을 의미하여 '신(辰)'과 '일'이 동의중복된 예이며 '시가댁'도 '가(家)'와 '댁(宅)'이 동의중복된 예로 볼 수 있다. 단순형 '탄신, 시가' 등과 중복형 '탄신일, 시가댁'이 유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탄신일'에서는 '신(辰)'이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한자를 덧붙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국어 화자들이 '탄신'의 의미를 막연히 "성인이나 귀인이 태어남을 높여 이르는 말"인 '탄생'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여 쓰기 때문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중복형인 '역전 앞'에서 화자가 '역전'을 무심히 기차정거장 켠으로 인식하여 다시 '앞'을 붙여 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한자어끼리의 동의중복에서는 좀더 쉽고 자주 쓰는 한자어를 중복하여 씌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그것이 국어 화자에게 개별적인 기능 단위로 인식되어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 '탄신'의 '신'은 국어에서 접미사적 용법이나 의존명사 등의 용법을 갖지 못하여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능 단위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신'은 국어 화자들의 어휘부에 개별 단위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日)'은 '국경일(國慶日), 공휴일(公休日), 경축일(慶祝日)' 등 접미한자어로서의 용법을 지니므로 어휘부에 따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탄신'에 국어 화자들이 기능 단위로 인식하는 '일(日)'을 덧붙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 댁'과 같은 한자어 기능 단위들은 고유어의 문법 단위와 거의 구별 없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

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일날(生日-), 국경일날(國慶日-)’과 같은 중복형도 가능
한데 이는 한자 ‘일’에 고유어 ‘날’을 중복하여 쓴 것이다. 이는 드물게
쓰여 기능 단위가 되지 못하는 ‘신(辰)’에는 ‘일(田)’을 겹쳐 쓰고 여기에
다시 중복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날’을 겹쳐 쓰
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잉여성이 문제되는 것은 ‘국경일날’처럼 원 단
어의 구성요소 ‘일’과 중복되는 요소 ‘날’이 모두 일상적이어서 기능 단
위가 되는 경우이다. ‘일’도 기능 단위로 ‘탄신일’과 같은 예에서 중복되
는 요소로도 사용되므로 ‘일’에 ‘날’이 붙은 ‘국경일날’과 같은 예는 ‘날’
이 더 잉여적인 요소로 느껴진다.

‘시가택, 외가택’도 ‘가(家)’가 국어에서 집을 뜻하는 기능 단위로 쓰이
지 않으니 ‘택’이라는 한자어를 중복하여 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예는 결국 2음절 한자어의 구성 요소와 같은 의미를 지닌 기능 단위 한자
어가 동의중복을 일으키는 예가 된다. 이때 ‘택’은 다른 사람의 집을 높
여 부를 때 붙여 쓰므로 ‘시가’와 ‘시가택’, ‘처가’와 ‘처가택’이 지시 대
상은 같더라도 높임의 정도라는 의미 차이를 보이면서 공존하게 된다.

한자어+한자어의 중복이 한자어+고유어 중복보다 드문 예에 속한다
는 사실과 관련해서 (24ㄴ)과 (24ㄷ)의 비교는 흥미롭다. (24ㄴ)은 한자
어+고유어 사이의 중복(‘초가집’)은 가능하나 한자어+한자어 중복(‘*초
가택’)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4ㄷ)의 ‘처갓집/처가택’과 같이
둘 다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택’이 존대의 의
미를 더 갖게 되므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가, 대가’에는 ‘택’이

결합할 수 있으나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초가, 한옥’에는 ‘택’이 결
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한자어끼리의 동의중복은 이중 어휘 사이의
중복보다 더 드물고,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동의중복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이 경우 한자어끼리의 동의중복은 존대 맥
락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다. 중복형이 더 유효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혼종어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서로 다른 어종의 언어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혼종어(hybrid)라 한다. 혼종어의 형성은 어종
과 관련된 어휘 공존의 또 다른 양상이다. 이 현상은 한자어나 외래어가
국어 어휘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들 외래 요소가 다른 어종과 자유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것은 화자가 이들을 고유어와 특별
히 구별하여 인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혼종어
형성에 참여하는 한자어나 외래어는 그만큼 국어 어휘로서의 지위를 확
고하게 가지고 있는 단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유입
된 이래 혼종어는 끊임없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 외래어의 급격한 증
가로 외래어와의 혼종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래 전에 형성된 혼종
어의 경우는 국어에서 활발히 쓰이면서 원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사라져
고유어와 구별 없이 인식되는 예도 있다.

앞에서 논의한 동의중복어 가운데 이중 어휘 사이의 동의중복은 혼종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동의중복 현상은 화자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질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유사한 의미의 고유어나 한자어를 중복하여 씌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다. 동의중복에 의한 혼종어는 동의중복이 아닌 혼종어와 형성 기제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다룬 동의중복에 의한 혼종어는 가급적 논외로 하고 그 밖에 어떠한 유형의 혼종어가 있는지 보기로 한다.

먼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혼종어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이들은 고유어가 선행하고 한자어가 후행하는 예들로 그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

- (25) 밥상(床), 발판(板), 뒷문(門), 몸통(桶), 번개탄(炭), 널판(板),
꽃병(瓶), 밥중(-中)

(25)는 고유어 명사 ‘밥, 발, 뒤, 몸, 번개, 널, 꽃, 밥’ 등이 한자어와 결합한 예이다.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상, 판, 문, 통, 탄, 판, 병, 중’ 등도 자립명사 또는 의존명사로 쓰여 국어의 단어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예들이다. 1음절 한자어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자립명사로 존재하는 경우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하늘, 땅, 풀, 나무’ 등에 대응하는 한자어 ‘천(天), 지(地), 초(草), 목(木)’ 등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에 비해 대응 고유어가 자립명사로 존재하지 않는 1음절 한자어는 자립명사의 용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冊),

상(床), 창(窓), 문(門)’ 등의 한자어 명사는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1음절 자립한자어들이 고유어나 외래어 등 다른 명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워 그만큼 혼종어 형성에 제약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6) 걸봉(-封), 달력(-曆), 가락지(-指), 모음집(-集)

(26)의 ‘봉(封), 력(曆), 지(指), 집(集)’ 등의 한자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형태로 고유어 명사와 결합하여 혼종어를 형성한 예이다. 이 중 ‘걸봉, 달력’은 ‘피봉(皮封), 월력(月曆)’의 차용역어(借用譯語, loan translation)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어에서 ‘피(皮), 월(月)’이 자립형식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걸, 달’이 자립형식으로 존재하므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락지’의 경우 어원적으로는 한자의 훈을 겹쳐 쓴 동의중복의 예이다. 고유어의 ‘가락’은 중세국어에서 ‘발가락, 손가락’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였으므로 ‘지(指)’의 훈과 같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가락’은 자립명사로서의 용법보다는 ‘엿 한 가락’과 같이 주로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의존명사의 용법 외에 ‘가락’은 ‘엿가락, 발가락, 가락옷’과 같이 주로 합성어의 구성 성분으로 남아 있다. 결국 ‘가락지’는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고리”로 의미가 변화하여 동의중복의 결과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예이다.

‘모음집’도 고유어 ‘모음’과 한자어 ‘집(集)’이 동의중복된 예로, ‘논문

모음집, 시 모음집' 등의 말이 활발히 쓰이고 있다. '모음'은 명사형으로 '시 모음, 논문 모음' 등의 용법이 가능하고 대신 한자어 '집'을 결합하여 '시집, 논문집'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적이지 않은 1음절 한자어와 결합한 '논집(論集), 문집(文集), 선집(選集)' 등의 예는 '집' 대신 고유어 '모음'을 결합한 '*논모음, *문모음, *선모음'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선행 한자가 자립성이 없으므로 고유어와의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集)'은 '모음'이라는 고유어 명사형이 쓰이지 못하는 자리에 쓰여서 이를 보완해 주는 듯하다. "갖가지 글이나 문서를 모아 놓은 책"의 의미로 쓰이면서 한자어 기능 단위의 자격을 지닌다.

(27) 어지럼증(—症), 따옴표(—標)

(27)은 '어지럼, 따옴'과 같은 고유어 명사형에 한자어가 결합한 예이다. 이때 '어지럼'은 '잠시 어지럼을 느꼈다'와 같이 명사 상당어로 쓰일 수 있으나 '따옴'은 '그 책은 따옴이 너무 많다'와 같이 명사로 쓰이기 힘들다. '따옴'의 경우는 '새김질, 생김새, 갈림길'의 '새김, 생김, 갈림'과 같이 실제 명사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형태론적으로 단어로서 적격한 구성을 갖춘 '잠재어'의 성격을 갖는다.

(28) 곱상(—相), 밍상(—相), 밀창(—窓), 걸상(—床), 들창(—窓); 먹성(—性),

싫증(—症)

(29) 된장(—醬), 난생(—生), 질통(—桶)

(28)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상(相), 창(窓), 상(床)' 등의 1음절 한자어 명사가 결합한 예이다.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구성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현대국어에서는 비생산적인 단어 결합 방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한 고유어 단어로 '접갈, 접바둑, 덮밥' 등 일부 예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먹성'의 '성'은 접미사로 굳어진 한자로 볼 수 있어 공식적으로 '먹다'는 동사 어간에 접미사 '성'이 결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 속하는 '먹성, 싫증'은 대응하는 한자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먹성'에 해당하는 '식성(食性)', '싫증'에 해당하는 '염증(厭症)'이라는 한자어가 있어 선행 한자 '식(食), 염(厭)'이 고유어 용언 '먹, 싫' 등으로 대체되어 생긴 것이라면 이 예들도 차용역어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성, 증'이 국어에서도 '귀염성, 불임성, 어지럼증, 갑갑증' 등에서처럼 고유어와의 결합이 가능한 접사적 용법을 갖게 되면서 개별 단위로 인식되는 사실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식성, 염증'의 선행 요소가 고유어로 대체되어도 단어 결합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식성'과 '먹성'의 경우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데, '먹성'은 "음식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식성/먹성이 까다롭다)뿐만 아니라 '먹성이 대단하다'의 예에서와 같이 "음식을 먹는 분량"의 의미도 갖는다.

(29)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한자어 명사가 결합한 예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용언 '되, 나, 자'에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이 결합하고 여기에 명사가 결합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유어에 한자어가 결합한 혼종어 중 파생어를 보자. 여기에

는 고유어 접두사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와 고유어 명사나 어근에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한 구조가 있다.

(30) 헛고생(-苦生), 날강도(-強盜), 만손자(-孫子), 숫처녀(-處女),

개수작(-酬酢), 개망신(-亡身)

(31) 오름성(一性), 나듬성(一性), 믿음성(一性), 행굼성(一性); 알레르기성,

알칼리성, 해프닝성, 코미디성, 코믹성, 알콜성, 스타성, 포르노성

(30)과 같이 고유어 접두사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31)과 같이 고유어에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성’과 같은 한자어 접미사의 경우 고유어보다 외래어 여기에 결합한 예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자어에서 완전히 접미사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많지 않고 ‘적(的)’과 유사하게 ‘성’도 고유어 어기와의 결합이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고유어 어기에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한 혼종어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접미사 ‘적’도 고유어 어기와의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는 데 비해 ‘톨스토이적, 찰스키적’과 같이 외래어 어기와의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선행 어기가 [-Native]의 형태 자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음적’과 같은 예가 쓰였으나 어색하여 널리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신어 자료에서 ‘적’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고유어 어기를 취하는 예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 (32ㄱ)에서는 ‘적’ 결합형이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한다 (32ㄴ, ㄷ, ㄹ)과 같이 어기가 확장되어 구를 어기

로 취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32) ㄱ. ?해바라기적, ?아빠적, ?놀이적

ㄴ. 그들은 권력만 쫓아다니는 해바라기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ㄷ. 해외에 가족들을 보낸 기러기 아빠적인 사고방식

ㄹ. 그간 17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연극을 봤다. 인형·천을 활용한 놀이적 기법으로 어린이 관객을, 슬픈 사랑 이야기로 어른 관객을 포획했다. <2003 신어>

다음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순서로 결합한 혼종어의 예이다. 먼저 합성어에 해당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 ㄱ. 문고리(門→), 책벌레(冊→), 색종이(色→), 약밥(藥→), 명란젓(卵→),

창살(窓→), 산기슭(山→), 약숫물(藥水→), 처갓집(妻家→)

ㄴ. 식칼(食→), 산달(産→), 월담(越→); 칫솔(齒→), 토담(土→)

(33ㄱ)은 한자어 명사와 고유어 명사가 결합한 예로, ‘문, 책, 색, 약, 창, 산’과 같은 1음절 한자어들이 고유어와 구별 없이 자유롭게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립성을 얻은 1음절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앞에서 예로 든 ‘약숫물, 처갓집’과 같은 동의 중복어들도 이 유형에 속하게 된다. (33ㄴ)은 선행 한자가 국어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형식이다. ‘식칼, 산달, 월담’은 동사 요소인

한자에 고유어 명사가 결합한 것이다. 자립성이 없는 1음절 한자의 경우 주로 한자 형태소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자의존형식+고유어 명사’와 같은 결합이 흔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도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식도(食刀), 산월(産月), 월장(越牆)’ 등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식도’에서 ‘도’에 해당하는 고유어 ‘칼’을 결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칫솔, 토답’의 경우는 구성 한자 ‘치, 토’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자립명사로서 존재하므로 이를 고유어로 대치한 ‘잇솔, 흙답’ 등의 고유어 단어가 존재한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순서로 결합한 혼종 파생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자어 접두사에 고유어 어기가 결합하는 경우와 한자어 어기에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 (34) ㄱ. 생고구마(生—), 양딸기(洋—), 시어머니(嫗—), 친할머니(親—)
 ㄴ. 총질(銃—), 초보꾼(初步—), 사진발(寫眞—), 여성스럽다(女性—),
 학자답다(學者—), 공부하다(工夫—), 면면이(面面—),
 색색이(色色—), 소신껏(所信—)

(34ㄱ)은 전형적인 한자어 접두사가 고유어 어기를 취한 예로, ‘생’의 경우 어기의 어종을 구별하지 않고 결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생크림(生cream), 생필름(生film)’과 같이 외래어에도 자유롭게 결합한다. (34ㄴ)은 한자어 명사에 고유어 접미사가 결합한 예로, 이들 접미사는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어 어기의 어종 제약이 거의 없어 이외에도 많은

혼종어를 형성한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한자어+고유어 결합 유형의 혼종어가 고유어+한자어 결합 유형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합성어에서 ‘악숫물’과 같은 동의중복 유형의 단어가 많이 존재하고 한자어 접미사에 비해 고유어 접미사가 어기의 어종에 의한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외래어와 결합한 혼종어의 예를 보도록 하자.

- (35) ㄱ. 사교댄스(社交dance), 유리컵(琉璃cup), 메모지(memo紙),
 쇼크사(shock死), 잉크병(ink瓶)
 ㄴ. 이모팬(姨母fan), 번개쇼핑(--shopping), 거울폰(--phone),
 효도폰(孝道phone), 떡케이크(-cake), 키즈사업(kids事業),
 간지남(かんじ男), 간지폭풍(かんじ暴風)
 (36) ㄱ. 홀리건화하다(hooligan化—), 투글족(two-族), 팬질(fan—)
 ㄴ. 유아틱하다(幼兒tic—), 귀차니즘(--ism), 휴게텔(休憩tel)

(35ㄱ)은 사전에 등재된 혼종 합성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예들이다. (35ㄴ)은 최근 신어에서 외래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혼종 합성어의 예이다. 외래어에 한자어나 고유어가 결합한 예들로, ‘간지’는 일본 어원의 외래어이다.

이에 비해 (36ㄱ, ㄴ)은 신어에 등장하는 혼종 파생어로 외래어가 결합한 예이다. (36ㄱ)은 외래어 어기에 한자어 접미사 ‘화, 족’과 고유어 접미사 ‘질’이 결합한 예이며, (36ㄴ)은 한자어나 고유어에 외래어 접미사

로 볼 수 있는 ‘-틱, -이즘, -텔’ 등이 결합한 예이다. 앞에서 한자어 접미사 ‘적, 성’ 등이 [-Native] 어기에 결합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틱’은 ‘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면서 최근에 등장한 외래어 접미사로 혼성어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적’은 원래 ‘로맨틱’의 ‘tic’을 번역 차용한 것인데 다시 ‘틱’이라는 외래어 접미사를 차용해 어종 자질이 비관여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즉 ‘틱’이 처음에는 ‘로맨틱, 에로틱’과 같은 외래어 어기에 결합하였을 것이나 점차 ‘유아틱, 여성틱, 학생틱, 시골틱’ 등과 같은 예에 생산적으로 쓰이면서 어기의 어종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혼종어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단어형성법

여기서는 단어형성의 관점에서 국어 어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종에 따른 단어형성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단어의 특성을 살펴보자. 국어 단어를 학교 문법에 따라 단일어(single word)와 복합어(complex word)로 나누고 복합어 안에 파생어(derived word)와 합성어(compound word)가 속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단일어

단일어(single word)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단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조어론에서는 어미를 뺀 어간이 형태소 몇 개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게 된다. 명사의 경우 ‘흙, 눈, 저고리, 치마’ 등은 한 형태소가 곧 단어의 자격을 가지므로 단일어가 된다.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용언의 경우 어간만으로는 자립형식이 되지 못하므로 ‘희다, 곱다, 가다, 먹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야 단어의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용언은 어미를 제거한 어간의 형태소가 단일 형태소일 때 단일어가 되는 것이다. ‘화, 곱-, 가-, 먹-’ 등의 고유어어간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일어가 된다.

이러한 정의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나 외래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자어의 경우 일부 예를 제외하면 대개 한 음절이 한 형태소가 된다. 따라서 ‘책(冊), 상(床), 창(窓), 문(門)’과 같이 1음절이 곧 자립형식인 경우는 단어의 자격을 얻어 단일어가 된다. 그러나 ‘춘추(春秋), 세월(歲月)’의 ‘춘, 추, 세, 월’ 각각은 국어에서는 자립형식이 아니므로 단일어가 되지 못하고 형태소의 자격만 갖는다. 따라서 1음절 한자어가 자립형식으로 쓰일 때만 단일어의 자격을 갖게 된다. 1음절 단일 한자어는 약 100여 개가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대응하는 고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송기중, 1992). 이에 비해 1음절 한자 형태소가 의존형식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대부분 자립명사로 존재한다.

위해 조사 텍스트의 비중을 똑같은 규모로 환산하여 절대 빈도를 상대 빈도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빈도순으로 단어를 제시할 때 단어별 개별 빈도와 누적 빈도를 제시할 수도 있다. 누적 빈도가 제시되면 전체 조사 대상 자료에서의 빈도 순위별 점유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14·강범모·김흥규(2009)의 상위 빈도 20개

순위	형태	품사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1	이	VCP	638362	3.858	3.858
2	것	NNB	305897	1.849	5.706
3	하	VV	198197	1.198	6.904
4	있	VX	189943	1.148	8.052
5	있	VV	180821	1.093	9.145
6	하	VX	120462	0.728	9.873
7	수_02 @할~가 있다	NNB	117579	0.711	10.583
8	되_01 @배우가~	VV	111653	0.675	11.258
9	그	MM	109987	0.665	11.923
10	않	VX	103362	0.625	12.547
11	없	VA	100791	0.609	13.156
12	나	NP	97710	0.590	13.747
13	그	NP	82906	0.501	14.248
14	사람	NNG	71306	0.431	14.679
15	이_05	MM	66843	0.404	15.083
16	아니	VCN	65551	0.396	15.479
17	등_05 @울산, 구미, 창원	NNB	59297	0.358	15.837
18	우리	NP	58091	0.351	16.188
19	지	VX	57685	0.349	16.537
20	보_01 @눈으로~	VV	57031	0.345	16.882

단어별 백분율과 누적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빈도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도 덧붙여야 한다. 빈도 조사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소개를 해야 이용자가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자료, 조사 방법, 자료 정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야 한다.

4. 기본어휘

기본어휘의 필요성과 개념

한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의 수는 최소 수십만 개 이상이다. 그런데 이들 단어가 언어생활에서 모두 같은 비중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 ㄱ. 엄마, 아빠, 눈, 코, 입, 나, 너, 보다, 주다, 가다, 하나, 둘, 셋

ㄴ. 사회, 문화, 시대, 세계, 정부, 관계, 지역, 역사, 정치

ㄷ. 마중물, 해감내, 상고대, 안돌이, 우듬지, 자리끼

ㄹ. 반강자성, 역운반체, 조색단, 정준형, 하전막

(3ㄱ)은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나이의 아이라도 알고 쓸 단어이다. 그만큼 언어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말들이다. (3ㄴ)도 언어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어휘 빈도 조사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들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뜻을 알고 쓸 만한 말은 아니다. (3ㄷ)은 알고 있거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단어들이다. (3ㄹ)은 화학 용어들이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의 듣거나 쓸 일이 없는 말들이다. 이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쓰는 단어도 있다.

또한 단어는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여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단어로 말하는 대신 그 단어의 뜻을 풀어 말할 수 있다. 사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쉽게 알기 어려운 단어는 그 단어 대신에 유의 관계나 상하의 관계에 있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유, 사고, 사상’과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생각’이라는 말로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다.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의미상으로 관련이 깊은 단어들의 차이를 잘 구분하여 써야 하고 또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말이 아직 능숙하지 못한 아이나 외국인이 읽거나 듣는 대상이 될 때 평소대로 자유롭게 단어를 선택하여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수 없다. 이럴 때 정확한 표현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말을 골라 이쉬운 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한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비중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한정된 어휘를 선정하는 일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대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이 어휘 선정에서 고려가 되기도 했다. 어휘 선정 작업은 국내외에서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국내외 성과를 검토하면 어휘 선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새로 말을 배워 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교육 단계에 걸맞게 단어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 단계에 맞춰 등급을 나눠 선정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어휘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려는 작업이 꾸준히 있었다.

둘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외국인이 하나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다가 포기한다. 만약 어휘를 제한한다면 언어를 배우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대체 표현이 가능한 만큼 어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언어 구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와 기초적인 문법을 선정하자는 발상이 있었다. 어휘 선정의 역사에서 초기 시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에 이미 오그덴(Ogden)은 850개의 단어를 발표하고 소설을 그 어휘만으로 번역해서 한정된 어휘로도 모든 언어 표현이 가능함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결국 교육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어휘 교육의 관점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접근 태도이다.

셋째, 한 언어에서 근간이 되는 어휘를 밝히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 어휘는 필수적인 만큼 세대를 이어가면서

한 언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어휘 연구의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둘 만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언어학의 관점에서 비교가 가능한 공통된 어휘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미국의 언어학자 스와데시(Swadesh)에 의해 창안된 언어연대학, 또는 어휘통계학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은 언어에서 이 어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언어의 분열 연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처럼 크게 네 가지로 과거의 어휘 선정 태도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동안의 어휘 선정 작업에서 이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접근 태도가 다름에 따라 필요한 단어의 선정 기준이 다르고 그 결과 선정된 단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목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에서 근간이 되는 어휘는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교육상의 필요에서든 의사소통의 필요에서든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찍 어휘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위한 단어가 될 가능성도 높다. 선정의 태도가 어떻든 선정된 단어들은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서로 다른 접근 태도를 택하였지만 이렇게 하여 선정된 어휘를 부르는 명칭으로 주로 ‘기초어휘’와 ‘기본어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용어를 보는 시각이 달라 이 두 용어의 쓰임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기초어휘 혹은 기본어휘에 관한 논의에서 학자에 따라 둘 중의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고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네

가지 접근 태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선정된 어휘를 부르는 명칭도 구분이 되면 혼란이 없겠지만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혼란은 불가피했다. 그런 한편 어휘의 목록이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성도 없지는 않다. ‘기초’와 ‘기본’이라는 말의 쓰임을 고려하면 대체로 근간이 되거나 필수적이어서 역사적으로 변동이 없는 어휘는 ‘기초어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을 위해 인위적으로 선정이 되어 기본이 되는 어휘는 ‘기본어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이런 면으로 보면 대체로 첫째 태도의 관점에서 선정된 어휘를 기본어휘로 보고 그외의 태도로 접근하여 선정된 어휘는 기초어휘로 불러야 할 것이다.

언어학계에서 기초어휘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고 그에 따라 기초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근간이 되거나 필수적이고 역사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식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언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를 선정한다는 데 대한 비판도 있었다. 오그던은 외국인을 위해 최소한의 단어만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상황을 설정했지만 그 정도의 단어만으로 언어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어 사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초어휘만으로 언어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한정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전 편찬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풀이할 때 한정된 어휘 목록에 속한 단어만 사용하도록 어휘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휘 통제의 결

과 한정된 어휘 목록에 속하지만 자주 쓰이지 않는 뜻이나, 그 단어가 들 어간 관용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 어휘 통제가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해 어휘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어휘의 선정은 역대로 다양한 결과물이 보고되었다. 어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어휘 선정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어휘의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쓰이고 언어생활에서 중요한 단어 위주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휘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1950년대에 이루어진 문교부 빈도 조사에서 이미 그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교과서 어휘 선정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에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표15·역대 기본어휘 선정 결과

연번	연구자	선정 방법	어휘 수
1	서정국 (1968)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2책을 빈도 조사 •빈도수 6 이상 단어 선정	2,365
2	이용백 (1972)	•어른 작품, 어린이 작품, 어린이의 말 녹음 자료 등을 빈도 조사 •빈도수 10 이상 단어 선정	2,713
3	안승덕 김재윤 (197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2책을 빈도 조사 •빈도 6 이상 단어 선정	2,005
4	이용백 (1978)	•교과서, 어린이의 말 녹음 자료를 빈도 조사 •빈도 조사 결과와 이용백(1972) 자료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선정	1,480

연번	연구자	선정 방법	어휘 수
5	이용백 이인섭 김승렬 (1982)	•이용백(1972)에서 사용한 자료와 초등학교 1, 2,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빈도 조사 •이용백(1972) 조사 결과를 사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초등학교 현직 교사 8인에게 위촉 하여 취학 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의 4개 수준으로 분류 •분류 결과를 정리하여 교과서의 학년별 빈도 조사와 대비하여 4개 수준 정리	15,005 1수준(취학 전), 1,600 2수준(1·2학년), 4,389 3수준(3·4학년), 5,840 4수준(5·6학년), 3,176
6	김희진 (1990)	•국어연구소에서 조사한 중학교 교과서 빈도 조사 결과를 이용 •빈도수 16 이상 단어 선정	2,795
7	이충우 (1994)	•국어연구소에서 조사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빈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선정 •이용백·이인섭·김승렬(1982)의 1수준 어휘를 기본어휘 수준 교육용 어휘로 수용	20,100 초등학교 14,600 중학교 5,500
8	최길시 (1998)	•어휘 빈도 조사 자료와 어휘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	2,000
9	서상규 남윤진 진기호 (1998)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에서 고빈도 어휘 추출	5,000
10	조현용 (2000)	•최길시(1998), 서상규·남윤진·진기호 (1998)와 연세대 교재 1,2급에 나오는 어휘를 비교하여 공통되는 단어 선정 •연세대 교재 색인에 누락된 어휘, 분석 기준의 차이로 누락된 어휘, 체계의 빈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 생존에 필요한 어휘, 공식 교육에 필요한 어휘, 기본적인 문화 어휘 등을 추가로 선정	725
11	김광해 (2001)	•1955년 문교부 빈도 조사 결과 등 14건의 목록을 대상으로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고려하면서 비교하여 중요도를 정하는 메타 계량 방법으로 단어 선정	237,990 1등급 1,845 2등급 4,245 3등급 8,358 4등급 19,377 등

연번	연구자	선정 방법	어휘 수
12	서상규 (2002)	•빈도 목록, 한국어 교재, 기본어휘 목록집 등에서 중요어를 정리하여 선정	2,975
13	임칠성 (2002)	•연세대 말뭉치, 한국어 교재의 빈도 조사 결과를 활용 •어휘의 체계를 검토한 어휘의 보충, 학습자들의 생활 어휘와 학습을 위한 어휘 및 한국 문화의 이해를 위한 어휘의 보충	1,038
14	조남호 (2003)	•어휘 빈도 조사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 6인이 어휘 선정 •전문가 6인의 선정 결과를 정리하고 조정하여 5,965어 선정	5,965 1단계 982 2단계 2,111 3단계 2,872

표15는 기본어휘에 관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어휘에 관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조사가 반복된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 조사한 것도 있고 외국인 교육을 위해 조사한 것도 있다. 또한 단계를 고려하여 단어를 선정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기본어휘만 선정하기도 하였다. 선정 단어의 수에서도 차이가 크다. 기본어휘의 목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 표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기본어휘 선정에서 고려할 사항

어휘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본어휘 선정의 경우 목표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수많은 어휘 중에서 어떤 단어를 어느 정도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어휘 선정에서 고려할 사항도 많다.

먼저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기본어휘 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내국인을 위한 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에서 사용할 목록 선정이 다를 수 있다. 내국인 교육의 경우 주된 대상은 이미 말을 배운 아이들로 학교에서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이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교육은 말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 그 외국인은 이미 하나의 언어를 배운 성인일 가능성도 많다. 말 자체는 모르되 말에 대한 감각은 내국인 교육 대상자보다 훨씬 더 발달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둘의 구분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배워야 할 어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여 각각 기본어휘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본어휘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년별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별로 기본어휘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교육을 위한 어휘 선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교육 과정을 구분하는데 그 과정에 맞게 기본어휘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어휘가 있을 수 있다.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어휘를

따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이런 목적으로 선정되는 어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어휘를 선정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어휘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는 선정할 어휘의 개수이다. 과거의 선정 결과를 보면 수백 개의 범위에서 선정하기도 하였고 수만 개가 넘기도 했다. 선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본어휘의 개수가 달라질 것은 쉽게 예상이 된다. 단계를 고려할 때는 단계에 따른 어휘의 수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적절한 어휘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실제 언어생활에 필요한 어휘의 수이다. 이때 참고가 되는 것은 빈도 조사의 결과이다. 빈도 조사에서 일부의 고빈도 어휘가 언어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휘 사용 빈도를 감안하여 어휘의 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사람의 어휘 사용량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성인이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15,000여 개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기본어휘를 선정함에 있어 포함할 부류 또는 범주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품사의 하나로 간주되는 조사이다. 조사도 단어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조사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빈도 조사에서도 품사 중의 하나의 지위를 차지한 조사를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듯이 기본어휘 선정에서도 여전히 문제

점으로 남는다.

고유명사를 포함해야 하는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체로 기본어휘에서 고유명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상 일부 고유명사를 포함할 필요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남호(2003)에서 어휘를 선정할 때 일부 고유명사를 포함한 바 있다.

그동안의 기본어휘 선정은 주로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글을 중심으로 단어의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어와 구어가 어휘 사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준말 등 구어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따라서 구어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구어도 기본어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화하면 어휘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유치원생이라도 알 만한 용어가 되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었다. 2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이 포함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 두 단어는 언어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된다. 시대가 변화면서 급속도로 퍼진 말로 기본어휘에 포함될 만한 말이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본어휘의 선정 범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본어휘의 선정 방법

기본어휘 선정 목적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단어 중에서 기본어휘에 속할 단어를 고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자주 사용되고 사용 범위가 넓은 단어가 기본어휘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어휘 빈도 조사를 먼저 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 나왔다. 통계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어휘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를 객관적 방법이라고 한다. 달리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빈도 조사 결과는 한 언어에서 어휘의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빈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빈도의 어휘를 일정한 순위까지 선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특정 분야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분야에 따라 쓰임이 다른 어휘들이 있다.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신빙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빈도에 기반하여 기본어휘를 선정할 때 분포를 감안하기도 한다. 총 출현 빈도와 분야별 출현 빈도를 함께 감안하여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다.

분야를 감안하여 선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방법이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빈도 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빈도 조사는 조사 방법, 대상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 조사 자체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표본 조사를 하는 빈도 조사에 따르는 불가피한

문제점이다.

빈도 조사의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점이 있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단어들이 항상 동일한 빈도수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빈도에 의존하는 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단어들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해도 빈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부류의 어휘들은 포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사 중에서 국어의 경우에는 ‘하나’에서 ‘열’까지는 동등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된 빈도 결과를 보면 이들 수사가 동등한 빈도를 보이지 않는다.

표16·수사 ‘하나’에서 ‘열’까지의 빈도와 순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빈도	1,346	369	76	24	22	7	7	2	11	132
순위	119	575	2,271	6,980	7,476	17,283	17,461	34,381	12,669	1,710

표16은 조남호(2002-7)에서 수사 ‘하나’에서 ‘열’까지의 빈도와 순위이다. 수사에 따라 빈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조사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동일한 수사라 해도 빈도에 차이를 보인다. 객관적 방법에 의할 경우 이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단어 중에서 일부만 선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분야별 분포라든지 어휘의 성격에 대한 고려 등 정교한 조사 방법을 써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 방법과 대립하는 것으로 선정자가 주관적으로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대체로 언어 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자의 주관에 따라 어휘를 선정하므로 주관적 방법이라고 한다. 경험에 기반하여 어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없지 않지만 바로 그 점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정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 어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알고 있는 어휘에 차이가 있다. 선정자 개인의 주관에 따른다면 선정자에게 친숙한 단어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정자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를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절충적 방법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섞어 이용하는 것이다. 빈도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자가 주관적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빈도 조사 결과만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선정자의 주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4장

어휘의 의미



1. 어휘의 의미 관계
2. 의미 변화

*이 장은 조항범(1993)을 토대로 하였다.

1. 어휘의 의미 관계

^{jednotlivé} 개별 단어들이 지나는 의미는 ^{jednotlivo, individuálne}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
 제로는 ^{charakteristika} 의미 속성에 따라 ^{vzájomne} 상호 관련되어 존재한다. 곧 ^{atribúty} ‘관계 속성’에 따
 라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의미가 ^{kategória} ‘관계 속성’에 따라 무
 리지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체계가 ^{uveďomenie si, systém} 부류 단위 내지 ^{jednotka} 층위 단위로
^{kategorizácia}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rôzne} 상이한 단어들이 지나는 의미들 사이의 ^{obsahujúce, keep} 관계 속성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포함(inclusion) ^{zahrnutie} inkluze
- ② 중첩(overlapping) ^{prekrytie}
- ③ 상보(complementation) ^{Komplementácia}
- ④ 연접(contiguity) ^{súvislosť}

①의 포함 관계는 ^{sféra} 의미 영역의 ^{úzkosť} 넓고 ^{najnižšie, spodok} 좁음에 따른 하의 관계(下義關係),
 ②의 중첩 관계는 의미 영역의 ^{prekrytie} 겹침에 따른 유의 관계(類義關係), ③의 상
 보 관계는 ^{jasný, zreteľný kontrast} 유표적 대조에 의한 ^{proti, anti} 반의 관계(反義關係), ④의 연접 관계는 의
 미의 ^{stand close, be near, susedný} 근접에 따른 ^{zjednotené do jedného, jeden} 공의 관계(共義關係)로 이해된다.
 의미 관계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 지나는 의미들 사이에서 ^{obsahujúce, keep} 성립하는 것
^{princíp pravidlo} 이 원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ovnaké, identické} 동일한 단어에 ^{establishes} 결부된 의미들 사이에서
^{be related, be connected}

be valid, be established
도 성립할 수 있다. 곧 한 단어가 중심 의미와 여기에 결부될 수 있는 다
derivated be in command, lead
수의 파생 의미를 거느리게 될 때, 그 중심 의미와 파생 의미 사이의 관
advance proceed ohýbanie, flexibility
계를 ‘관계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사이의 유연성
stratit' chýba, absence
(有緣性) 상실이나 결여도 ‘관계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form
이와 같이 동일 형식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들이 중심 의미와 파생 의
vzťah viacerých, mnoha
미의 관계로 파악된다면 이들은 ‘다의 관계(多義關係)’로 이해되며, 이들
stratit' od začiatku etymologicky irrelevant to, unrelated homonyma
의미들이 유연성을 상실하거나 아예 어원적으로 무관하다면 이들은 ‘동
음이의 관계(同音異義關係)’로 이해된다. 이들 의미 관계의 유형을 순서대
로 살펴도록 한다.

하의 관계

rôzne keep carry a series, chain, succession
하의 관계(下義關係)는 상이한 단어들이 지니는 일련의 의미들이 상호
chápání, porozumenie discuss, debate význam
포함 관계에 놓일 때 논의할 수 있다. 의미상의 포함 관계는 넓은 의미
škála, odvetvie, rozsah
영역을 지니는 의미가 그보다 좁은 의미 영역을 지니는 의미를 포함하거
나, 그 반대로 의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가 그보다 넓은 의미 영
역을 지니는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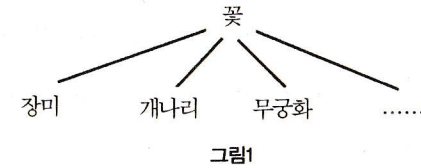


그림1에서 ‘꽃’은 ‘장미, 개나리, 무궁화’ 등을 포함하고, 그 반대로
‘장미, 개나리, 무궁화’ 등은 ‘꽃’에 포함된다. 곧 이들 ‘꽃’과 ‘장미, 개나
a series, chain, succession
리, 무궁화’ 등은 하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하의 관계는 일련의 의미
spoločné trieda, stratum štruktúra, organizácia
들이 상호 어떤 의미를 포함하거나 어떤 의미에 포함됨으로써 계층 구조
formate develop relation, relevance
를 형성하는 의미 관련성으로 정의된다.

structurally
계층 구조상 상위에 놓이는 ‘꽃’은 하위에 놓이는 ‘장미, 개나리, 무궁
nadradený
화’ 등에 대해 ‘상위어(hyperonym)’라 하고, 하위에 놓이는 ‘장미, 개나
podradený
리, 무궁화’ 등은 상위에 놓이는 ‘꽃’에 대해 ‘하위어(hyponym)’ 또는 ‘하
podriadený
위어(下位語, subordinate)’라 하며, 두 층위의 의미 관계를 ‘하의 관계
(hyponymy)’라 한다. 그리고 하위의 같은 층위에 놓이는 ‘장미, 개나리,
rovnaké podradené slová
무궁화’를 ‘동위어(coordinate)’ 또는 ‘공-하위어(co-hyponym)’라 한다.

계층 구조상 ‘하위어’는 ‘상위어’보다 아래에 놓인다. 아래에 놓인다는 것은 상위 영역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 포함된다
zúžiť
는 것은 의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미 영역
의 넓고 좁음으로 보면 ‘상위어’가 ‘하위어’보다 넓음을 알 수 있다.

organize, form kvalifikácia means, number
그런데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자질의 수에서는 ‘하위어’가 ‘상위어’보
kontrast be included, be covered
다 많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말하자면 ‘포함되는’ 하위어가 그것을

‘포함하는’ 상위어보다 의미 영역은 좁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因子)^{faktor}의 수는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먹다’에 포함되는 의미 중의 하나인 ‘탐식하다’는 ‘먹다’가 지나는 [食]이라는 의미 자질 이외에 [過食], [食慾] 등의 자질을 더 갖는다. 곧 하의어는 상위어가 지나는 자질 이외에 하나 이상의 자질을 더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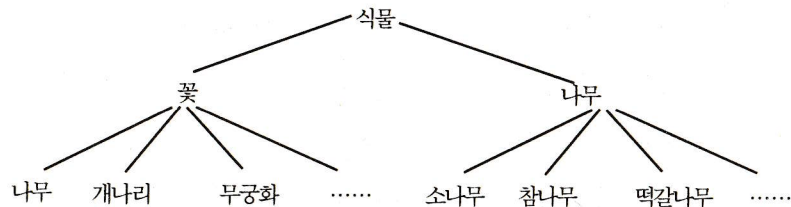


그림2

의미의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층위의 구조(곧, 층위의 수나 깊이)는 대상 의미 영역의 조정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꽃’과 ‘장미, 개나리, 무궁화’ 등은 2단계 층위 구조를 보이지만, 여기에 ‘꽃’의 상위어인 ‘식물’이 첨가되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 ‘꽃’, ‘장미, 개나리, 무궁화’의 3단계 층위 구조로 발전하며, ‘꽃’에 대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포함되는 ‘소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등과 같은 새로운 대비 항목이 더 늘어난다. 곧 층위의 수나 깊이는 상위 영역이나 하위 영역의 확대에 따라 더 많아지고 깊어지며, 층위에 배열되는 항목의 수는 층위의 수나 깊이^{proporcje}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하의 관계의 각 층위는 그 층위를 구성하는 개별 의미들을 지시하는^{individa} 단어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기도 하지만, 특정 의미를 지시하는 단어를 가지지 못하여 구조상의 빈칸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3-1, 3-2에서 보듯 ‘평’에 대한 ‘장끼, 까투리’, ‘아버이’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계층 구조는 각 층위에 요구되는 의미들이 모두 구비됨으로써 완전하지만, 그림 3-3에서 보듯 ‘손가락’의 계층 구조는 네 번째 손가락을 지시하는 의미가 부재하여 완전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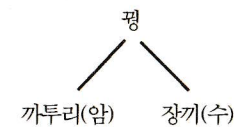


그림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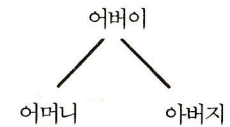


그림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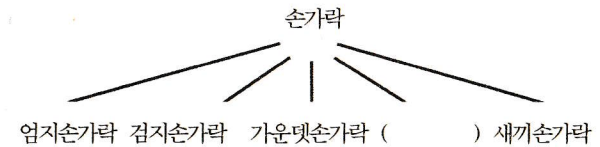


그림3-3

유의 관계

유의 관계(類義關係)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지나는 의미들이 상호 동질 관계에 놓일 때 논의할 수 있다. 의미상의 동질 관계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관련된 의미들이 동일한 의미 영역이나 중첩된 의미 영역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 그 의미 영역이 엄격히 동일한 단어들은 자연언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미의 동질 관계는 부분적인 의미의 중첩 관계로 이해된다.

두 개 이상의 의미들이 상호 중첩되는 부분은 개념적 의미이고, 그 외의 중첩되지 않는 부분은 연상적 의미이다. 이렇듯 개념적 의미는 동일하나 연상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 의미 관계가 유의 관계이고, 이와 같은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가 유의어이다.

유의어는 개념적 의미는 같지만 연상적 의미는 다른 단어이기에 일정한 문맥에서는 교체 사용될 수 있어도 모든 문맥에서 교체 사용될 수는 없다.

- (1) 가. 아버님 : [남성] [+1세대] [직제] [격식성]
 나. 아빠 : [남성] [+1세대] [직제] [친밀 층위] [사랑]

(1)에서 ‘아버님’과 ‘아빠’는 [남성], [+1세대], [직제]라는 시차적(示差的) 성분을 지녀 개념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격식성], 후자는 [친밀 층위], [사랑] 등의 보충적 성분을 지녀 연상적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

인다. 그리하여 두 단어는 모든 문맥에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다.

유의어를 논리적 관점에서 ‘완전 유의어’와 ‘부분 유의어’로 나눌 수 있다면, 경험적 관점에서는 ‘위상적 유의어’, ‘방언적 유의어’, ‘문체적 유의어’, ‘차용적 유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상적 유의어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 내지 특정 부류 집단에서 사용되면서 유의 관계를 유지하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병명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맹장염(盲腸炎)’과 전문적으로 쓰이는 ‘충수염(蟲垂炎), 충양돌기염(蟲樣突起炎)’은 일반어와 전문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위상적 유의어이다.

방언적 유의어는 서로 다른 방언권에 속하면서 유의 관계를 유지하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표준어 ‘짜리문’과 방언 ‘삼작’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들 방언적 유의어는 단지 [지역성]이라는 보충적 성분에서만 의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의 관계를 논의할 때 보통 제외한다.

문체적 유의어는 문체적 양상을 달리하지만 유의 관계를 유지하는 단어들이다. 문체적 양상에는 ‘표현의 격식성’, ‘표현의 의미 가치’, ‘표현의 언어적 성격’ 등이 관련된다. 예를 들어 비격식적 성격의 ‘술’과 격식적 성격의 ‘약주(藥酒)’는 표현의 격식성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문체적 유의어이고, 중립적 의미 가치를 지니는 ‘불구자(不具者)’와 부정적 의미 가치를 지니는 ‘병신(病身)’은 미적 의미 가치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문체적 유의어이며,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죽다, 돌아가다’와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서거하다, 영면하다’는 언어적 성격에 따라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문체적 유의어이다.

차용적 유의어는 외래 요소가 새롭게 가세함으로써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이다. 국어에 수용된 외래 요소는 한자어, 일본어, 서구어 등이 주류를 이루어, 자연히 차용적 유의어는 한자어, 일본어, 서구어 계통의 세 종류가 된다. 고유어와 이들 사이의 유의적 성층은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 내지 삼중의 대립 구조이다.

(2) ㄱ. 고유어 대 한자어 : 가을걷이/추수, 알맹이/핵심

ㄴ. 고유어 대 서구어 : 모임/미팅, 짝/파트너

ㄷ. 한자어 대 서구어 : 경기/게임

ㄹ. 고유어 대 일본어 : 젓가락/와리바시, 가락국수/우동

ㅁ. 고유어 대 한자어 대 서구어 : 익살/해학/유머

의미의 유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더 나아가 유의 관계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유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nahradenie}‘교체 검증법’, ^{konflikt, opposition}‘대립 검증법’, ^{skladanie, sequence}‘배열 검증법’의 세 가지가 있어 왔다.

^{kontext}교체 검증법은 유의어들을 특정 문맥 속에서 상호 ^{alternativa}교체해 보는 방법이다. 이를 ‘대치법’ 또는 ‘치환 음미법’이라고도 한다. 일정 문맥에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면 유의 관계가 인정된다. 아울러 문맥 교체가 제약 ^{brief period}되면 그만큼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틈’과 ‘겨를’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3) ㄱ. 뒤돌아 볼 틈/겨를이 없다.

ㄴ. 문 틈/*겨를에 연필이 빠졌다.

(3-ㄱ)에서 알 수 있듯이 ‘틈’과 ‘겨를’은 공히 시간적 의미의 문맥에 사용될 수 있어 유의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3-ㄴ)에서 보듯이 ‘틈’은 공간적 의미를 요구하는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반면, ‘겨를’은 그와 같은 문장에 사용될 수 없어 두 단어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대립 검증법은 유의어 개개에 대한 반의어를 제시함으로써 유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antonyma}같은 반의어를 공유하는 두 단어 이상은 유의어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become thin}‘마르다’와 ^{gain weight}‘여위다’는 ‘살찌다’라는 반의어를 전제할 때 유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받는다. 이때는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물의 주어와 통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연못, 물’, ‘돈, 물건’ 등과 같은 [무정물의 주어와도 통합하여 ‘차다’, ‘충분하다’ 등과 같은 반의어를 더 가질 수 있다. 반의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만큼 두 유의어는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거름, 두엄, 퇴비’의 예에서 보듯 반의어를 갖지 않는 유의어들이 있고, 또 ‘신다, 입다, 끼다’의 예에서 보듯 동일한 반의어(여기서는 ‘벗다’)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의미를 중첩 관계로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유의성을 검증하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배열 검증법은 의미상 이웃하여 나타나는 관련어들을 하나의 의미 계

열체로 나열하여 이들 사이에 드러나는 의미 차이를 대비에 의해 밝히는 방법이다. 곧 개별 의미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유사 의미들을 함께 묶어 전체 관계 속에서 대조적 관점으로 개별 의미의 특수성과 상호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4) 빠르다-쏟알같다-잡싸다-날썰다

(4)와 같이 빠른 속력을 표시하는 단어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들 하나하나를 떼어서 분석하기보다는 이들 전체 단어들의 의미를 묶어 대비해 보는 것이다. 이들이 빠른 속도를 지시한다는 점, 빠름의 정도나 행위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단순 대비에 의해서도 밝혀질 수 있다. ‘쏟알같다’는 ‘빠르다’보다 빠름의 정도에서 앞서고 ‘잡싸다, 날썰다’는 순간적 행위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대비 방법은 그 방법론이 특별히 서 있지 않거나 기준이 없다면 인상적 단어 구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우연히 형태나 의미가 같으면 상호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한다. 형태가 같음으로써 발생하는 대립을 ‘동음 충돌’¹¹⁾, 의미가 같음으로써 발생하는 대립을 ‘유의 충돌’로 설명한다. 유의 충돌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유의 경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유의 경쟁을 하게 되면 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작동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경쟁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유의 경쟁의

결과 드러나는 양상은 의미 소실, 의미 공존, 의미 변화, 의미 중복 등이다.

유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대부분의 단어들은 소실된다. 이를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소실되는 것이다. 의미 소실은 유의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양상이다. 유의 경쟁이 경쟁어 중 어떤 것을 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 소실은 유의 경쟁의 기본 유형이라고 할 만하다. 의미 소실은 ‘고유어 대 고유어’, ‘고유어 대 한자어’, ‘고유어 대 서구어’, ‘고유어 대 일본어’, ‘한자어 대 한자어’, ‘서구어 대 서구어’, ‘고유어 대 한자어 대 서구어’ 등의 성층 구조에서 발생한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유의 경쟁을 할 때에는 대체로 한자어가 우세하지만 고유어가 의성·의태어이거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기초어휘일 경우에는 고유어가 우세하기도 하다. ‘빠꾸기’와 ‘곽공(郭公)’, ‘빨래하다’와 ‘세답하다(洗踏)’의 유의 경쟁에서 한자어를 제치고 고유어가 살아남은 것이 그와 같은 예가 된다.

의미 공존형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이 공시대 속에서 큰 의미 변화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물론 이들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 빈도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어서 그 빈도의 격차가 심해지면 유의 경쟁력이 약화된 단어가 소실 또는 의미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자국/자취/흔적(痕迹)’, ‘샘/질투(嫉妬)’ 등은 유의 관계를 공시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의미 변화형은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 중 하나 이상이 본래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변신을 꾀함으로써 유의 관계를 해소하는 유형이다. 다른 의미로의 변신은 추상적 의미로의 전이(의미의 추상화), 의

11 ‘동음 충돌’에 관해서는 ‘동음이의 관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미의 축소와 확대, 의미 가치상의 변동 등이다. 이와 같은 의미적 변신은 결국 유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해체하는 것이므로, 곧 유의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의미 변화는 유의 경쟁 회피의 적극적 방편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방편은 단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던 ‘언니’가 여성만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은 ‘형’과의 유의 경쟁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온’이 “백(百)”이라는 의미에서 “전체”, “전부”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은 한자어 ‘백’과의 유의 경쟁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미 중복형은 유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의미 기능이 떨어진 두 개의 유의어가 그 약화된 의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결합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를 ‘동의중복형’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지계’와 ‘문(門)’이라는 단어가 유의 경쟁을 하다가 상호 의미 기능이 떨어지자 그 의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두 단어를 결합하여 ‘지계문’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다고 본다.

앞에서 보았듯, 유의어들은 경쟁 체제에 들어가 유의 충돌하게 되면 충돌의 결과적 양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극단적인 양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양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충돌의 결과적 양상에는 그 양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경쟁의 우열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묶어서 ‘유의 경쟁의 지배 요인’이라 부른다.

이들 요인에는 단어 형태의 안정성, 의미의 안정성, 동음 충돌 여부,

관련 단어의 영향, 언어 경제성 등이 있다.

① 형태 안정성

안정적인 단어 형태를 유지하는 단어가 그렇지 못한 단어와의 유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대체로 형태 안정성은 특정의 조어 유형이 일반성을 띠는 추세에 힘입어 ‘-하다>-하다’ 접미형이 일반성을 띠는 추세에 힘입어 ‘-하다>-하다’ 접미형 동사들이 형태상의 안정성을 획득하고, 형용사의 경우는 ‘-브/브-, -압/압-, -롭-’ 등과 같은 형용사화 접미사를 포함하는 형태가 일반성을 띠는 추세에 힘입어 형태 안정성을 획득한다. 다음에서 ‘/’ 뒤에 오는 단어들이 그런 예이다.

(5) ㄱ. 더느다/나기하다(> 내기하다), 막뚫다/뚫무시하다(> 매무시하다),

좋다/굿굿하다(> 깨끗하다)

ㄴ. 찢다/어렵다, 어위다/너그럽다, 잠측하다/붓그럽다(> 부끄럽다),

파려하다/고돌프다(> 고달프다)

② 의미 안정성

유의 경쟁의 우열은 유연성 획득에서 유리한가, 원의나 기본 의미에 충실한가, 지시 의미가 구체적인가 등과 같은 의미 안정성의 문제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대체로 유연성 획득의 면에서 유리한 유의어, 원의 내지 기본 의미에 충실한 유의어, 지시 의미가 구체적인 유의어가 의미 안정성을 확보하여 그렇지 못한 유의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 ‘ㄹ늪다(>가늪다)’가 ‘혹다’와의 유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혹다’가 지니는 “細”의 의미는 “小”의 의미에서 파생된 부차적 의미인데 반해 ‘ㄹ늪다’가 지니는 “細”의 의미는 원의에 해당하여 의미 안정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Homonymy clash

③ 동음 충돌 여부

동음 충돌은 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유의 경쟁 관계에 있는 단어 중의 하나가 다른 단어와 동음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이 유의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欺”의 의미를 지니는 ‘두르다’와 ‘속이다’와의 경쟁에서 ‘두르다’가 불리한 것은, “囿”, “鞫”의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두르다’와 동음 충돌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influence

④ 관련 단어의 영향

deriváty

파생어 또는 합성어인 유의어는 단어 구성상 이들과 관련된 단어가 의미 변화하거나 세력이 약화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 다른 유의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곧 유의 경쟁이 인접 관련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여원밥’과 ‘마른밥’의 유의 경쟁에서 전자가 소실된 것은 “乾”, “瘦”에서 “瘦”로 의미가 축소된 구성 요소 ‘여위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ekonomika

⑤ 언어 경제성

유의 관계에 놓인 단어 가운데 발음하기 쉬운 단어가 유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발음하기 쉽고 편하려면 음절의 길이가 짧고 음감이 좋으며 어조가 고라야 한다.

이외에도 유의 경쟁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의미 적용 범위의 넓고 좁음’, ‘활용상의 제약’ 등의 요인이 더 있으나 예가 많지 않아 일반화해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반의 관계

series chain

opposition, conflict perspective, viewpoint

반의 관계(反義關係)는 일련의 의미들이 상보적 대립 관점에서 의미 관련성을 보여줄 때 논의할 수 있다. 이는 의미 대립에 의한 의미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이들 의미 사이에는 이질성과 더불어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odlišnosti,

spoločné kvality

prístupné,

이질성은 상호간 차이를 유발하는 유표적 대조점으로, 동질성은 하나의 의미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의미 성분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반의 관계는 공통된 의미 성분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하나의 유표적 의미 성분에서만 반대 가치를 지니는 의미 관계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관계에 놓이는 단어들을 ‘반의어(antonym)’라 한다.

common component, background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공통적 성분으로 하나의 의

sféra build, develop

미 영역을 형성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측면에서 반대 가치를 지니므로 반의 관계를 보인다. ‘아버지’와 ‘딸’은 [인간]이라는 공통적 성분을 지녀 하나의 의미 영역을 형성하지만, [성]과 [세대] 양면에서 다른 가치를 보이므로 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반의 관계는 대립되는 의미들 사이의 관계 속성에 따라 등급적 반의 관계, 상보적 반의 관계, 상관적 반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등급적 반의 관계는, 관련 의미들이 척도, 평가, 정감 등의 기준에서 정반대의 가치로 등급화되는 반의 관계를 말한다. 곧 길이, 속도, 무게의 척도에서, 긍정·부정의 이율적 가치 평가에서, 화자 자신의 정감적 가치 판단에서 극과 극의 대립을 이루는 의미 쌍의 의미 관계이다. 예를 들어, ‘길다/짧다’는 ‘길이’라는 가변적 속성에서 극성 대립을 이루고, ‘좋다/나쁘다’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가치 평가에서 극성 대립을 이루며, ‘기쁘다/슬프다’는 주관적·개인적으로 느끼는 화자의 정감적 반응의 결과에서 극성 대립을 이룬다.

등급적 반의 관계는 극과 극이라는 두 축이 대립하지만,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립 지역의 존재는 양극의 의미가 미치지 못하는 일정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의 관계의 개개 항의 의미가 특정 의미 영역을 엄격히 양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길다/짧다’의 경우, 양극의 항목이 대립하는 ‘길이’ 범주에는 이들이 망라하지 못하는 “길지만 극도로 길지 않은”, “짧지만 극도로 짧지도 않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등의 일정한 중립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등급적 반의 관계는 양극 사이에 중립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통사, 의미적 특성을 보인다.

- ① 등급적 반의 관계의 어휘 항목은 동시 부정이 가능하다.

예) X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 ② 한 항목을 포함한 진술은 다른 항목을 포함한 부정 진술을 함의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의 예에서 “X는 길다”는 “X는 짧지 않다”를 함의하지만, “X는 짧지 않다”는 “X는 길다”를 함의하지 않는다.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X는 길다	$\longleftrightarrow$	X는 짧지 않다
Y는 짧다	$\longleftrightarrow$	Y는 길지 않다

- ③ 등급적 반의 관계의 양 항목은 그 등급 정도가 극성을 띠지만 이들 사이에 중립적 개방 지역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또 비교 표현도 가능하다.

예) X는 (조금, 꽤, 대단히, 매우) 길다/짧다.

X는 Y보다 더 길다/짧다.

상보적 반의 관계는, 반의 관계를 이루는 의미 쌍이 참여하는 의미 영역이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나뉘는 반의 관계를 말한다. 특정 영역을 철저히 양분하므로 두 구역 중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의미는 반드시 나머지 다른 구역에 속해야 한다. 말하자면 상보적 반의 관계의 의미 영역에는 대립적 의미가 중화될 수 있는 중립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남성/여성’, ‘총각/처녀’, ‘신사/숙녀’, ‘참/거짓’, ‘있다/없다’ 등이 상보적 반의 관계의 예이다.

상보적 반의 관계는 중립 지역과 같은 여유 공간을 남기지 않고 그 영역을 철저히 양분하여 일 대 일로 존재하므로 이들 어휘 항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통사, 의미적 특징이 보인다.

- ① 상보적 반의 관계의 어휘 항목은 동시 긍정이나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

예 X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

X는 살지도 죽지도 않았다. (?)

- ② 한 항목을 포함한 진술은 다른 항목을 포함한 부정 진술을 함의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곧, 단언(斷言)과 부정에 대한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X는 살았다 → X는 죽지 않았다
 ←
 Y는 죽었다 ← Y는 살지 않았다

- ③ 두 항목이 영역을 철저히 양분함으로써 중립 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과 관련된 정도 표현이 불가능하고(곧,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또 비교 표현도 거의 불가능하다.

예 X는 {매우, 조금, 대단히} 살았다/죽었다. (?)

X는 Y보다 더 살았다/죽었다. (?)

상관적 반의 관계는, 반의 관계를 이루는 의미들이 역행적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대립되는 관계이다. 의미의 의존성은 존재 자체의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수되는 현상이다. 결국, 의미 영역을 두 쪽으로 명쾌하게 단절하되 그 영역을 이루는 대상들이 관습이나 관념상 의존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 상관적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스승/제자’, ‘왼쪽/오른쪽’, ‘부모/자식’, ‘능동/피동’, ‘사다/팔다’, ‘주다/받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스승/제자’의 경우 [배움터에 모인 사람이라는 의미 영역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서로 양분되어 대립하나 가르치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두 대상 내지 의미는 상호 의존적이다.

상관적 반의 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를 그 절대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사, 의미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① 한 항목을 포함한 진술은 다른 항목을 포함한 진술과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다.

예 김 선생은 나의 스승이다. = 나는 김 선생의 제자이다.

나는 그에게서 물건을 샀다. = 그는 나에게 물건을 팔았다.

- ② 한 항목을 포함한 부정 진술은 다른 항목을 포함한 부정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예 김 선생은 나의 스승이 아니다. = 나는 김 선생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물건을 사지 않았다. = 그는 나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

- ③ 상호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역을 철저히 양분하므로 정도 표시 표현이나 비교, 대조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 김 선생은 나의 매우 스승이 아니다. (?)

김 선생은 나의 더 스승이 아니다. (?)

나는 그에게 물건을 더 팔았다. (○)

그는 나에게 물건을 더 샀다. (○)

공의 관계

공의 관계(共義關係)는 일련의 의미들이 상호 근접성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성을 맺고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다. 곧 공의 관계는 의미가 아주 유사하여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한다.

연접 유형의 의미들은 그 공통된 의미 성분으로써 분명한 의미 영역을 형성하고, 그러면서도 뚜렷한 대조점에 의해 상호 엄격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접 유형의 의미들은 성분 분석법의 적용을 받아 쉽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아들, 딸’ 등은 [친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인다. 그러면서 [성], [세대], [계통]이라는 시차적 성분에 의해 그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는 의미는 확정된 의미 영역을 보이면서도 뚜렷한 의미 성분으로 변별되는 전형적인 연접 유형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남성], [+1세대], [직계]

어머니: [여성], [+1세대], [직계]

아저씨: [남성], [+1세대], [방계]

아주머니: [여성], [+1세대], [방계]

아들: [남성], [-1세대], [직계]

딸: [여성], [-1세대], [직계]

다의 관계

다의 관계(多義關係)는 한 단어가 지니는 여러 의미들이 유연적(有緣的) 관계로 파악될 때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의 관계는 ‘한 단어가 지니는 상이한 의미들’과 ‘그들 의미 사이의 의미 관련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다의 관계가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손’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6) ㄱ. 손이 아프다: 手

ㄴ. 손에 넣다: 소유

ㄷ. 손을 내밀다: 원조

ㄹ. 손을 쓰다: 주선

ㄴ. 손을 놓치다: 기회

ㄷ. 손이 적다: 사람

ㄷ. 손이 많다: 마음

ㄹ. 손이 크다: 아량

(6)에서 볼 수 있듯이 ‘손’은 “手”의 의미를 비롯하여, 문맥에 따라 “소유”, “원조”, “주선”, “기회”, “사람”, “마음”, “아량” 등의 다수의 의미를 아울러 갖는다. ‘손’이 지니는 의미는 문맥 환경이 다양해지면 그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중심 의미는 “手”이며 여타의 다른 의미들은 이에서 전이되어 나간 파생 의미이다. 중심 의미와 여타의 다른 파생 의미들은 물론이고 그 확대 전이된 파생 의미들 사이에도 모종의 의미 관련성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손’이 지니는 여러 의미는 ‘다의 관계’로, 그리고 ‘손’ 자체는 ‘다의어’로 파악된다.

어떤 단어가 특정 문맥에 선택되어 사용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문맥적 의미가 생겨난다. 문맥적 의미는 단순히 중심 의미의 변종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중심 의미에서 멀어져 독자성을 띠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문맥적 의미들이 중심 의미의 변종으로 인식되어 중심 의미로 통합될 수 있는 경우를 ‘적용상의 전이’ 단계라 하고, 후자와 같이 문맥적 의미들이 독자성을 확보하여 파생을 완결하는 경우를 ‘다의’ 단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가 죽다”, “칼날이 죽다”, “색깔이 죽다”라는 문장에 쓰인 ‘죽다’의 의미는 단순히 중심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달리 실현된 주변적 의미에 불과하여 ‘적용상의 전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적용상의 전이’와 ‘다의’는 의미 분화의 단계 내지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의미 확대 과정에서 ‘적용상의 전이’가 ‘다의’의 앞 단계라면, ‘다의’는 ‘적용상의 전이’의 다음 단계이다. 따라서 ‘적용상의 전이’ 단계가 극대화되면 ‘다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나의 단어에 결부된 여러 의미들이 의미상 관련이 있으면 이는 ‘다

의 관계’로 설명된다. 반면 이들 여러 의미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 ‘동음이의 관계’로 설명된다. 곧 ‘다의’와 ‘동음이의’는 ‘의미 관련성’에 의해 변별된다.

예를 들어, ‘배’라는 하나의 명칭에는 “腹”, “船”, “梨”, “倍” 등의 다양한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 의미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동음이의 관계’로 설명된다. 물론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배’에 결부된 “腹”과 “船”은 아주 가까운 의미이다. 예전의 ‘배(船)’는 통나무의 ‘배(腹)’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곧 한때 ‘배’는 “腹”이라는 의미 외에 “船”이라는 의미를 갖던 다의어이다. 그러다가 “腹”과 “船”의 의미 관계가 희박해지면서 다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래부터 동음이의 관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의 관계에서 유연성이 상실되어 동음 관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음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유연성을 회복하면 다의 관계가 부활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적용상의 전이가 정도를 확대하면 다의 관계로 발전하고, 다의 관계에서 유연성이 상실되면 동음이의 관계로 떨어지며, 동음이의 관계에서 유연성이 회복되면 다시 다의 관계로 복귀하는 긴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다의 관계와 동음이의 관계는 ‘의미 관련성’이라는 기준뿐만 아니라 ‘단어의 역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도 변별된다. 의미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으로 명쾌하게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단어의 역사성이라는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라는 형태에서 “脚”과 “橋”라는

의미가 확인되는데, 이 두 의미 사이의 관계가 다의 관계인지 동음이의 관계인지를 의미 관련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15세기에서 “脚”의 ‘다리’는 ‘다리’였고, “橋”의 ‘다리’는 ‘드리’여서 명백히 다른 단어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현대국어 ‘다리’를 다의 관계보다는 동음이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단어의 역사성이라는 기준은 의미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보강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다의와 동음이의 관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다의와 동음이의를 구분하는 작업은 역사적 사실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시적 연구의 소관이며, 두 현상은 의미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미 관련성이라는 기준도 약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관련성의 한계를 확정하는 일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기준의 약점으로 인해 한쪽만을 강조하여 두 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까지 나오게 되었다. ‘다의어적 접근’과 ‘동음이의적 접근’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는 동음어의 자격을 아주 제한하는 대신 다의어의 자격과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며, 후자는 다의어의 개념을 극히 제한하는 대신 동음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은 새롭게 만든 단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단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곧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다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이는 언어 경제를 이루려는 자연 언어의 근본적

인 특성이다. 물론 다의는 적용상의 전이, 동음어의 재해석, 의미의 특수화와 일반화, 외국어의 영향, 비유 표현 등을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다양한 문맥적 의미가 중심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단계를 ‘적용상의 전이’라 하고, 그것이 중심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성을 얻는 단계를 ‘다의’라고 앞에서 지정한 바 있다. ‘적용상의 전이’와 ‘다의’는 의미 분화상의 선후 단계이므로, ‘적용상의 전이’ 단계가 확대되면 ‘다의’ 단계로 이행한다.

(7) ㄱ. 물을 먹다, 담배를 먹다

ㄴ. 욕을 먹다, 마음을 먹다, 뇌물을 먹다, 녹을 먹다

(7ㄱ)에 쓰인 ‘먹다’는 중심 의미 “食”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적용상의 전이 단계의 의미이다. 반면 (7ㄴ)에 쓰인 ‘먹다’는 “당하다”, “굳히다”, “받다” 등의 의미를 띠어 중심 의미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발생한다. 곧 이들은 다의 단계의 의미가 된다.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지나는 의미들이 본래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 해석되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그 의미들은 다의 관계로 발전해 간다. 곧 동음어를 재해석함에 따라 다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지나는 의미들이 본래부터 근접하여 유사하거나 의미 변화로 우연히 근접하여 유사할 것 등의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지나는 의미들을 서로 유관한 것으로 바라보는 민간어원적 해석이 뒤따른다. 곧 그 의

미들을 다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 ‘녀름(夏)’과 ‘여름(實)’은 전혀 어원이 다른 별개의 단어인데, ‘녀름’에서 어두의 ‘ㄴ’이 탈락하여 ‘여름’이 되면서 동음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여름에는 열매가 많이 생산된다는 기존 관념이 “夏”와 “實”의 거리감을 좁혀 “實”이라는 의미가 “夏”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민간어원적인 해석으로까지 발전한다. 그 결과 동음이의 관계에 있던 두 의미가 다의 관계로 오해되기도 한다.

일반 사회에서 폭넓게 사용되던 단어가 특수 사회에 한정되어 사용되거나 그 반대로 특수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면, 이들 단어에 본래 의미 이외의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전자의 경우를 의미의 특수화, 후자의 경우를 의미의 일반화라 말하는데, 이들 특수화된 의미나 일반화된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공존한다면 이들 사이에는 다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말은 본래 “父”의 뜻이지만, ‘발명의 아버지’, ‘물리학의 아버지’ 등에서는 “창시자” 내지 “권위자”의 의미를, ‘하느님 아버지’에서는 “天主”의 의미를 띤다. “창시자” 내지 “권위자”는 추상화된 비유적 의미이고, “天主”는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 사회로 적용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파생된 특수 의미이다. 결국, ‘아버지’는 그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비유적 의미와 특수화된 의미를 함께 지니는 다의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단어가 외국어의 의미를 차용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와 새로 들어온 의미는 다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애매하다(曖昧-)’는

“억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전통적 한자어였는데, 일본식 한자어 ‘曖昧’에 영향을 받아 여기에 “모호하다”라는 의미가 첨가되었으며 지금은 오히려 그와 같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로써 ‘애매하다’가 “억울하다”와 “모호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가 된 것이다.

한 단어는 본래 의미 이외에 사물의 유사성 내지 인접성에 바탕하여 파생된 하나 이상의 비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본래의 의미와 이에서 파생된 비유적 의미가 공존한다면 이들은 다의 관계를 형성한다. 사물의 유사성(곧 의미간의 상사)에 바탕을 둔 비유를 ‘은유’, 사물의 인접성(곧, 의미간의 근접)에 바탕을 둔 비유를 ‘환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바디 > 이바지’는 “宴會”라는 의미에서 은유에 의해 “貢獻”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변하면서 다의 관계를 이루고, ‘아침’은 “아침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환유에 의해 “아침 식사”라는 구체적 의미로 변하면서 다의 관계를 이룬다.

동음이의 관계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들과 결합할 때 이들 의미 사이에 아무런 의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음이의 관계(同音異義關係)로 이해된다. 동음이의 관계는 그 명칭들이 갖는 동질성에 초점을 두기에 줄여서 ‘동음 관계(homonymy)’라 부르기도 한다. 동음 관계에 있는 단어를 ‘동음어(homonym)’라 한다. 결국 ‘동음이의 관계’는 우연히 동일한 발음

을 공유하되, 아무런 의미상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동음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완전 동음어’와 ‘유사 동음어’, ‘동철자 동음어’와 ‘이철자 동음어’, ‘본원적 동음어’와 ‘현상적 동음어’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동음어는 장단, 고저 등 운소적(韻素的) 자질까지 일치하는 동음어를 가리키며, 유사 동음어는 운소적 자질이 달라 엄밀하게는 음이 다른 동음어를 가리킨다. 국어에서 장음으로 발음이 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과 단음으로 발음이 되는, 신체의 일부인 ‘눈(眼)’처럼 장단의 발음이 다른 것들이 유사 동음어이다. 동음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때로 발음은 같지만 철자는 다른 예들이 있다. 동철자 동음어는 철자까지 일치하는 동음어를 가리키고, 이철자 동음어는 발음은 동일하나 철자는 다른 동음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좋다(好)’와 ‘조타(操舵)’라든지, ‘반듯이’와 ‘반드시’는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으므로 이철자 동음어가 된다. 본원적 동음어는 독립된 단위로서 동음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동음어이고, 현상적 동음어는 문맥이나 발음 조건에 의해 동음 관계를 이루는 동음어이다. 예를 들어, ‘주는(繡)’과 ‘주는(興)’, ‘같이’와 ‘갓이’는 현상적 동음어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완전 동음어와 동철자 동음어를 묶어 동음어로 간주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에 이철자 동음어와 현상적 동음어를 합하여 동음어로 간주한다.

동음어는 언어 기호의 자의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겨나기도 하지만, 다의어의 의미 분화, 음운 변화의 결과, 외래어의 증가 등과 같

은 언어의 이차적 특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 단어의 의미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 분화가 극대화하면 중심 의미와 파생 의미 또는 파생 의미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급기야 의미 관련성이 단절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의 관계가 동음이의 관계로 발전한다. 유연성 상실에 의해 다의 관계가 동음이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해(太陽)’와 ‘해(年)’의 경우, ‘해(年)’가 “태양의 일주기가 되는 동안”을 뜻하므로 이 둘은 분명 다의 관계로 파악된다. 그런데 ‘해(年)’를 ‘해(太陽)’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퇴조함으로써 둘 사이의 의미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해(太陽)’와 ‘해(年)’의 관계와 같이, 천체와 그와 관련된 기간을 지시하는 ‘달(月)’과 ‘달(朔)’의 관계도 다의 단계를 넘어 동음어화한 느낌이다.

역사적으로는 형태상 구별되던 단어 중 어떤 단어가 특정 시기 이후 음운 변화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면서 동음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곧 ‘.’의 소실, 어두자음군의 변화, 음운 탈락, 음운 축약, 구개음화 등에 의해 형태가 변개함으로써 동음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살(肉)’은 ‘. > ㅌ’에 따라 ‘살’로 바뀌어 ‘살(矢)’과 동음 관계가 되었다. 공시적인 측면인 음운변이에 의해서도 동음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곧 자음 동화나 말음법칙, 연음법칙 등에 의해 발음이 같아져 동음 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어,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이 남으로써 ‘궁민(窮民)’과 동음 관계가 된다.

발음이 동일한 외래어(또는 한자어)가 국어에 수용되어 이미 있던 단어와 새롭게 동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국어 속의 한자어

의 증가는 국어의 어휘 수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한자어,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의 동음어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랑’과 ‘사랑(舍廊)’, ‘방화(放火)’와 ‘방화(防火)’ 등이 그와 같은 예이다.

어떤 언어든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동일한 수많은 동음어를 갖고 있다. 동음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언어 기호의 자의성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뜻이 다른 동음어의 존재는 언어생활에 혼동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은 ‘문맥’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소되기는 하지만 모든 동음어가 문맥의 도움을 받아 의미의 혼란을 피해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음어들은 심하게 대립하여 의미 식별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렇듯 의미의 혼란을 야기하는 동음어들의 형태상 대립을 ‘동음 충돌(homonymic clash)’이라 한다. 동음 충돌은 주로 동음어가 지니는 의미들이 상호 근접함으로써 의미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듯 동음 충돌이 의미의 혼란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병리 현상이기에, 그 충돌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동원된다. 이를 동음 충돌 회피 방법이라 한다.

전형적인 동음 충돌 회피 방법은 형태소 첨가이다. 접사나 단어를 기존 동음어에 첨가함으로써 동음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서 ‘죽(粥)’과 ‘죽(주걱)’이 동음으로 충돌하자 후자의 ‘죽’에 접미사 ‘-억’을 결합하여 형태를 달리함으로써 동음 충돌을 피하였다. 곧 ‘주걱 > 주걱억’이라는 파생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동음 충돌 회피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람벽’이라는 동의중복 형태가 만

들어진 것도 ‘바람(風)’과 ‘바람(壁)’의 동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2. 의미 변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일어난다. 한 단어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형식인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내용인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형태의 변화는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어 그 변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의미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그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의미 변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속성이 있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의미 변화는 쉽게 포착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단어들이 그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서는 언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의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 변화는 의미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찍 주목을 받던 주제여서, 그만큼 성과도 컸다. 여기에서는 의미 변화의 요인,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 변화의 요인

의미 변화는 그 변화를 촉발하고 유도하는 요인에 의해 시작된다. 이들 요인에 이끌려 의미가 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띤다. 그런데 의미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양상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용하는 요인을 쉽게 규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미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자주 언급되는 요인은 여섯 가지 정도이나 수많은 변화 양상을 두루 고려하면 그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 여섯 가지는 언어 전수 방법의 비지속성, 의미의 애매성, 유연성의 상실, 다의 현상, 중의적 문맥, 어휘 구조의 복잡성이다.

① 언어 전수 방법의 비지속성

언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계승된다. 그 전수 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도 하지만, 전수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여 단절적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 언어가 다음 세대에 단절적으로 전수되는 것을 비지속적 방법에 의한 언어 전수라고 한다. 언어가 비지속적으로 전수되면 의미상의 오해가 발생한다. 의미상의 오해는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잡히지만 때로 교정되지 않고 확산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된 의미가 새로운 언어 사용 세대에 정착되어 영속화하기도 한다. 곧 잘못 전해진 의미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굳어지면서 해당 단어에 의미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적당히(適當)’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이 말은 본래 한자 뜻 그대로 “딱 들어맞게”, “알맞게”의 뜻을 지닌다. 그런데 ‘적당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서 이 말을 일부 사람들이 “대충”이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하였다. 이 의미가 젊은 세대에 그대로 전해져 본래의 의미인 것처럼 굳어졌다. 곧 ‘적당히’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희한하다(稀罕)’가 “매우 드물다”에서 “신기하다”,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변한 것, ‘세수(洗手)’가 “손을 씻음”에서 “낮을 씻음”이라는 의미로 변한 것도 언어 전수가 비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의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의미의 애매성

비가시적이고 심리적 실체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애매한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애매성은 의미 변화의 원천이 된다. 애매성은 의미가 지니는 일반성, 다면성, 불분명한 지시 범위, 단어와 지시물과의 친연성 결여 등과 같은 내재적 특성에 의해 야기된다.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공통된 요소로 결속된 사물을 묶어서 표현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자연히 일반성 내지 보편성을 띤다. 가령, ‘의자’라는 단어는 앉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괄해서 지시하므로 그 의미가 지나치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성이 의미의 애매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시해야 할 외계의 사물이 분명한 경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한 지시 범위를 보일 수 있다. ‘배’, ‘등’, ‘허리’의 지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지시 대상이 분명한 경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③ 유연성의 상실

유연성은 형태 또는 의미상의 친연 관계를 말한다. 주로 의미상의 친연 관계를 고려할 때 유연성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유연성이 확보되던 단어의 형태나 의미가 크게 변하거나 아니면 세대간 단절되어 단어 자체가 잘 쓰이지 않게 되면 유연성이 희박해지거나 상실될 수 있다. 유연성이 상실되면 그 유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재해석을 시도하게 된다. 재해석된 새로운 의미가 세력을 얻어 굳어지면 본래의 의미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입게 된다. 곧 유연성 상실에 따른 재해석이 축매가 되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말(洋襪)’은 본래 “서양바선”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양말’을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양말’과 한자어 ‘洋襪’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에 신는, 실로 겹거나 뜯 장신구”라는 의미로 재해석하여 이해하고 있다. ‘손돌’이라는 지명이 “좁은 물목”이라는 의미에서 뱃사공 이름으로 둔갑한 것도 ‘손’과 ‘돌’에 대한 의미적 정보를 잃고 민간어원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④ 다의 현상

한 단어가 다양한 문맥에 적용되면 중심 의미와는 다른 다양한 파생 의미들이 생성될 수 있다. 이들 중심 의미와 파생 의미들 사이에 유연성이 확보되고 또 그 파생 의미들이 독자성을 띠면 다의 관계로 이해된다.

다의에서 파생 의미는 중심 의미로 보아서는 새로운 의미이며, 둘 사이의 의미 전이 과정은 의미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로써 중심 의미로부터 파생 의미를 유도해 내는 다의 현상은 의미 생성의 근원적 방법이면서 또 한편으로 의미 변화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머리’는 “頭”라는 중심 의미 이외에 여기서 파생된 “시초”, “지능”, “정신작용”, “머리털”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들 파생 의미는 중심 의미로 보아서는 변화된 의미가 된다.

⑤ 중의적 문맥

문장의 중의성(重義性)은 대체로 그 문장에 사용된 특정 단어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한다. 이 특정 단어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중의적 문장의 의미 교정에 의해 본래의 의미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 중의적 문장의 의미가 안정성을 누리면 새로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그 새롭게 해석된 의미가 일반화되면 의미 변화로 이어진다. 곧 문장의 중의성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⑥ 어휘 구조의 복잡성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속성에 따라 하나의 집합체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아울러 한 집합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합체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어휘 구조의 복잡성으로 개별 단어는 특정 집합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양보와 협조를 통해 공존의 길을

걸기도 하지만 대립과 경쟁으로 관련 단어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 손상은 형태 변개, 단어 소실, 의미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단어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특히 유의 관계는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의미 변화의 원인

의미 변화를 겪는 단어들은 수없이 많다. 그 수만큼이나 의미 변화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또한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미 변화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의미 변화는 대체로 역사적 원인, 언어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① 역사적 원인

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 문물이나 과학, 제도, 풍속 등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한 끊임없이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부 세계를 표현하는 명칭은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 결과 변화된 시각으

로 그 명칭을 바라보게 되어 결국 의미가 새롭게 해석된다.

물론 이는 명칭 자체의 주체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고, 명칭과 관련된 지시물의 변화에 따른 부수적 변화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의미 변화와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나 명칭과 그 지시 의미의 연합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의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때 지시물의 변화는 지시물 자체의 변화, 지시물에 대한 감정적 태도의 변화,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지시물 자체의 변화는, 그 변화가 결국 그것을 지시하는 명칭의 의미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시물 자체의 변화에는 외양적 변화와 더불어 본성적 변모까지 포함된다. ‘돈’은 중세국어 이래 같은 형태를 유지해 온 단어이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의미는 예전과 지금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돈’이 주화에서 지폐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차’, ‘배’ 등의 의미가 이전 시기와 다르게 인식되는 이유도 이들이 지시하는 지시물 자체가 변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기생’이라는 단어도 예전부터 써 오던 단어이다. 조선 시대의 ‘기생’은 문(文)과 예(藝)를 갖춘 예능인이었다. 반면 지금의 ‘기생’은 문과 예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듯 ‘기생’이라는 지시물의 본성이 변함으로써 ‘기생’을 더 이상 문과 예를 갖춘 인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몸과 웃음을 파는 막된 여자”라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덕수궁’, ‘북한산성’, ‘광릉’ 등과 같은 역사적 유적들이 그 본래의 기능이나 역사적 의의에 따라 해석되기보다는 각기 “전시관”, “유원지”, “산림욕장”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도 그 지시물의 본성이 세월에 따라 변했기 때

문이다.

지시물에 대한 감정적(주관적) 태도의 변화는, 지시물 자체는 변화가 없으나 이 지시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그 지시물을 대신하고 있는 명칭의 의미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시물을 보는 태도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 선전, 개인이 온축하고 있는 경험과 습관, 전통과 시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가 지시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낳고, 그 고정관념이 명칭에까지 영향을 미치어 정서적 가치를 변화시킨다. 명칭의 정서적 가치가 변하면 결국 그 정감적 의미도 달라진다.

‘일본(인), 미국(인)’이라는 단어가 시대나 개인에 따라 그 정감적 의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들에 대한 평가 태도가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의 경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절대적 도움을 받던 절박한 시절에는 ‘미국(인)’은 고마운 이웃으로 인식하였으나, 주체적 민족주의가 발현되고부터는 선량한 이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곧 ‘미국(인)’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미국(인)’을 긍정적인 쪽으로도 이끌고 부정적인 쪽으로도 이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이 정감적 의미로 굳어지면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는, 지시물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과학과 인지의 발달로 그에 대한 지식이 달라짐으로써 지시물을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 준 진보적 지식이 옛 지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 지시물에 대한 규정이 새로워지고 그 결과 명칭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달’을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과학의 힘에 의해 ‘달’이 정복되어 그 실체가 드러난 뒤로는 더 이상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달라지면서 그것에 결부되었던 신비적 의미는 사라진 것이다.

② 언어적 원인

의미는 순전히 언어 내적 원인에 의해 변하기도 한다. 단어의 형태 구조, 문장의 구조, 의미의 대립과 유연성 상실 등과 같은 언어의 내적 원인이 작용하여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형태론적 관점, 통사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화 행위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생략은 형태론적 관점, 인접한 문장 구성 요소 사이의 영향 관계로 파악되는 전염은 통사론적 관점, 그리고 인접한 의미들 사이의 대립 관계로 이해되는 유의성(유의 경쟁) 및 유연성 상실에 의한 의미의 재해석 절차인 의미적 유연화(민간어원)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특정 단어나 통사적 구성의 일부를 생략한 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생략된 형태가 생략되기 전의 단어나 통사적 구성과 같은 의미를 띠기도 한다. 이는 생략되기 전의 단어나 통사적 구성의 의미가 전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생략에 의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생략에 의한 의미 변화는 문장, 어구, 단어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꽂초’에서 ‘담배’가 생략된 ‘꽂초’가 “담배꽂초”라는 의미를 띠는 것은 단

어 차원의 생략에 의한 의미 변화이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아이들 나름대로’와 같은 구에서 ‘나, 제, 아이들’이 생략된 ‘나름대로’가 문맥 상황에 따라 “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 나름대로” 등과 같은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구 차원의 생략에 의한 의미 변화이다. 생략형인 ‘나름대로’의 의미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정성껏”, “그런대로”, “어떤 점에서는” 등과 같은 비유적 의미로까지 발전하여 다의적 독립부사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라는 문장에서 ‘안녕히’가 생략된 ‘가세요.’가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녕히 가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문장 차원의 생략에 의한 의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단어는 특정 단어와 자주 어울려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단어들이 서로 어울려 나타나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 단어의 의미가 그것과 빈번히 인접하여 나타나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전이되어 감염되는 현상을 전염(傳染)이라 한다. 전염된 의미는 이전의 의미와 전혀 달라 변화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전염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이다. 특히 ‘없다, 아니다, 못하다’ 등과 같은 부정어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전염의 객체는 특정 서술어와 어울리는 명사 또는 부사이다.

‘엉터리’는 본래 “대체의 기초” 또는 “사물의 근거” 등과 같은 긍정적 의미로 쓰이던 단어인데, 이것과 빈번히 어울려 나타나는 부정어 ‘없다’의 부정적 의미 가치에 전염되어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보기보다 매우 실속이 없거나 실재와 어긋

나는 것”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없다’가 지니는 부정적 의미 가치가 이것과 빈번히 접촉하여 나타나는 ‘엉터리’에 파고들어가 ‘엉터리’까지도 부정적 의미로 만든 것이다. 부정어 ‘없다’에 영향을 받아 본래의 의미를 잃은 단어에 ‘주책없다’의 ‘주책’, ‘채신없다’의 ‘채신’, ‘별수 없다’의 ‘별수’ 등도 있다. 곧 ‘주책’은 본래 ‘主着(주착)’으로 “일정한 주관이나 쫓대”를 뜻하고, ‘채신’은 본래 ‘處身(처신)’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뜻하며, ‘별수’는 ‘別手’로 “특별한 수단”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후행하는 ‘없다’에 영향을 받아 각기 “쫓대 없이 하는 것”, “가벼운 몸가짐이나 행동”, “아무런 수도 아닌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으로 얻은 것이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공존하면 늘 대립과 갈등을 하게 된다. 곧 유의 경쟁을 하게 된다. 이때에는 그 유의 경쟁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유의 경쟁의 결과적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유의어 중 경쟁력이 약화된 단어는 유의 계열에서 탈락하여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충돌을 피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곧 유의 경쟁이 의미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유의 경쟁에 의한 의미 변화는 ‘추상적 의미로의 변이’, ‘의미의 축소와 확대’, ‘의미 가치의 변동’ 등으로 실현된다. 이때의 의미 변화는 무엇보다도 유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적 성격이 짙다.

민간어원이란 말 그대로 민간에서 민중이 만들어내는 비과학적인 어원을 말한다. 곧 언중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흥미 위주의 어원이 민간어원이다. 언중은 단어의 형태나 의미가 극심히 변하거나

또는 시대간 단절이 너무 심하여 그 유연성이 상실되면 끊임없이 유연화(有緣化)를 꾀한다. 이때 해당 단어와 형태가 우연히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단어를 끌어들이어 해석하게 된다. 그 결과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먼 엉뚱한 의미가 생겨나기도 한다. 곧 민간어원이 의미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곱창’에 쓰인 ‘곱’의 유연성이 상실되어 어원을 잃게 되자 그것과 형태가 같은 형용사 어간 ‘굽-(曲)’을 끌어 들여 ‘곱창’을 “꾸불꾸불한 창자”로 재해석한다. 이로써 ‘곱창’의 본래 의미인 “지방분으로 이루어진 창자”라는 의미는 점차 힘을 잃고 새로 해석된 의미가 힘을 얻는다. 이 경우는 의미만 변했지 형태는 변하지 않은 경우인데 의미와 더불어 형태까지 변하는 경우도 있다. ‘한량(閑良)’은 본래 “벼슬을 못하고 놀고 있는 무반”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동화 작용에 의해 [할량]으로 발음이 나자 다시 ‘할’과 어형이 유사한 ‘활(矢)’을 연상하여 ‘할량’을 ‘활량’으로 바꾼 뒤에 “활 잘 쏘는 건달” 내지 “놀고먹는 건달”로 재해석하고 있다. ‘한량’이 본래 무인(武人)이고 무인과 ‘활’과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그에 따른 형태 변개와 의미 변화가 함께 일어난 것이다.

한편, 민간어원에 의해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그 의미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주머니’를 “아기를 낳는 주머니가 있는 여자”, ‘마누라’를 “마주 보고 늙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은 예이다. ‘아주머니’나 ‘마누라’와 같이 그 어원 해석에 대한 의욕은 충만한데 딱히 그와 관련된 어형을 제시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와 같은 언어 유희적 어원 해석이 나오

게 된다.

민간어원은 흥미로워 쉽게 받아들여지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실인 양 굳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원 가운데에는 이러한 민간어원으로부터 고착된 것이 적지 않다. 이들은 우리의 언어생활이나 의식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쉽게 수정되지 않는다. ‘도루묵, 화냥년’ 등에 대한 민간어원의 역사는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이 된다. 민간어원은 언어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또 어원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언어생활을 오도하는 병리적 측면도 있어 양면적이다.

③ 사회적 원인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약속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변화로부터 무관할 수 없다. 사회를 구성하는 성층(成層)이 변하거나 사회와 관련된 제도나 구조 등이 변하면 이에 따라 특정 단어의 의미도 변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라고 하는데, 사회적 성층에 의한 변화와 사회적 구조에 의한 변화로 나뉜다.

먼저 사회적 성층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 사회는 여러 성층의 다양한 사회로 구성된다. 가령, 대사회(大社會)는 횡적으로 부분 사회, 지역 사회, 특수 사회(정치 사회, 경제 사회, 교육 사회, 군인 사회, 종교 사회) 등과 같은 여러 성층의 소사회(小社會) 집단을, 종적으로 왕족 사회, 귀족 사회, 중인 사회 등과 같은 여러 성층의 소사회 집단

을 거느리게 된다. 한 단어는 대사회에서 종과 횡으로 소사회로 넘어가 쓰일 수 있고, 그 반대로 종과 횡의 소사회에서 대사회로 넘어가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소사회에서 대사회로 넘어가 사용되면 의미의 일반화가, 대사회에서 소사회로 넘어가 사용되면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불교라는 특수 사회에서 “급소를 자름”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단말마(斷末魔)’가 일반 사회로 넘어와 쓰이면서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이나 “임종”이라는 의미로 변한 것, 그리고 조선시대 왕권 사회에서 “군주”라는 의미로 쓰이던 ‘왕’이 일반 사회로 넘어와 “최고”, “최대”, “제일인자” 등의 의미로 변한 것은 의미의 일반화에 속한다. 이에 비해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일에 익숙한 사람”을 뜻하는 ‘고참’이 군대 사회로 차용되어 “군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한정 지칭하면서 “상급 선임자”라는 의미로 변한 것,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피가 핏줄 밖으로 나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출혈’이 경제 사회와 군대 사회로 들어와 “경제적 손해나 손상”과 “전투원의 손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의미의 특수화로 설명된다.

사회적 구조에 의한 의미 변화는 특정 사회의 제도나 조직, 그리고 사회상 등이 변하면 그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 곧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춰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양반’은 본래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을 뜻했던 고려 이래의 행정 기구였다. 이 기구는 조선시대에 얼마간 유지되다가 사라졌다. 이 기구가 없어지면서 그 본래의 의미도 사라지고 그 대신 “사대부”라는 계급적

의미와 “지체나 신분이 높은 상류층”이라는 신분적 의미가 부가되었다. 사회 기구의 변화가 그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까지 변하게 한 경우이다. ‘장가들다(丈家-)’는 글자 그대로 “장인의 집에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조어된 단어이다. 이러한 의미는 모계 중심 사회의 결혼 풍습과 밀접히 관련된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남자가 처가의 서옥(婿屋)에 살면서 자식을 낳아 기른 뒤에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풍습에서 ‘장가들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계 중심 사회에서 부계 중심 사회로 넘어오면서 결혼 풍습도 바뀌고, 그에 따라 ‘장가들다’라는 말도 그 어원적 의미로서 보다는 “결혼하다”라는 보편적 의미로 변하였다.

④ 심리적 원인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나 의식, 그리고 심리 상태나 감성 등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지니는 심리는 고정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가변적이며 그 작용도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이렇듯 언어가 본질상 심리적 실체이면서 또 그 운용이 심리적 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심리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심리 상태가 유동적이라면 언어는 인간의 심리 상태나 심리적 작용의 변화로부터 무관하지 못하다.

언어는 화자의 심리 상태나 작용 또는 정신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심리적 원인에 근거해서 의미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감정적인 측면과 금기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감정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를 살펴보자. 어떤 주제에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보일 때가 있다. 이렇듯 어떤 주제에 특별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은 주관적 감정에 지배된 결과이다. 이때 관심의 대상인 주제는 은유의 형태로 화제의 중심을 이루어 확장되어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를 끌어들이는 견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해당 주제는 ‘확장의 중심’과 동시에 ‘견인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 영역’을 핵으로 그것에서 방사되는 은유의 한 움직임과 그것을 향하는 은유의 또 다른 움직임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일론’이라는 옷감이 고급의 옷감에서 저급의 옷감으로 전락하면서 이것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 방사의 중심이 된 적이 있다. “나일론(룡) 참와”, “나일론(룡) 박수”, “나일론(룡) 환자” 등은 그 결과 나온 표현들이다. 이들에서 ‘나일론(룡)’은 “덜된”, “엇터리”라는 비유적 의미를 띠고 있어, 옷감으로서 ‘나일론’이 갖는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때 전쟁과 관련된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던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무기나 계급장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그 관심이 무기나 계급장에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또는 명칭)을 끌어다 관련시키는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였다. 말하자면 특정 무기나 계급장이 ‘견인의 중심’이 되어 다른 명칭들을 이것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든 것이다. ‘권총’에 ‘돼지다리’, ‘철모’에 ‘바가지’, ‘계급장’에 ‘갈매기’라는 단어가 건인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예이다. ‘돼지다리’가 ‘권총’, ‘바가지’가 ‘철

모’, ‘갈매기’가 ‘계급장’을 표현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이들 단어들은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 결국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를 살펴본다. 어느 민족이든 그들이 특별히 접촉하기를 꺼리고 피하는 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접촉을 금지하는 대상이 있다. 공포를 가져다주는 악령이나 두려움의 상징인 동물, 지독한 병, 불결한 대상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금기 행위는 금기야 이들 대상을 지시하는 명칭까지 금기시하게 만든다. 명칭에 대한 금기적 태도가 형성되면 언어적 금기 의식이 싹트고, 그에 따라 금기 대상의 명칭을 대신하는 단어가 마련된다. 금기 대상이 되는 단어를 ‘금기어’라 하고, 금기어를 대신하는 다른 단어를 넓게 보아 ‘완곡어’라 할 만하다. 이때 선택된 완곡어가 이미 사용되던 말이라면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서 결국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언어 금기는 대체로 ‘공포의 대상에 대한 호칭 금기’, ‘우아한 표현을 위한 금기’, ‘예절적 표현을 위한 금기’라는 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원시 신앙을 대표하는 여러 신, 그리고 잡다한 귀신 및 악령, 토tem신앙의 동물 또는 해를 주거나 혐오스러운 동물이다. 이들은 인간을 구원하고 지켜준다고 생각되던 신성한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이익보다는 해를 가져다준다고 생각되던 불길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경외감 내지 신성감, 그리고 혐오감 등은 그 대상을 가리키는 명칭까지 금기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으로써 호칭 금기가 생겨났다. ‘호랑이’를 ‘꽃, 산신령, 사또, 영감’ 등으로, ‘쥐’를 ‘아기네, 며느리, 액씨남’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동

물에 대한 호칭 금기의 예이다. 그 결과 ‘꽃, 산신령, 사또, 영감’과 같은 단어들은 ‘호랑이’라는 의미를 얻게 되어 의미 변화를 겪는 것이다.

질병, 죽음, 범죄, 성 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부정적 대상들이다. 이들 부정적 대상들은 고통을 피하여 안주하기를 바라고 세상이 밝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 이끌려 금기 대상이 된다. 대상의 금기화는 그 명칭까지 필연적으로 기피하도록 하여 또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낸다. 이 단어들은 본래의 명칭이 주는 어두운 감정, 불쾌감, 불결감을 덜어주는 우아한 표현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승천(昇天), 승하(昇遐), 타계(他界), 운명(殞命), 돌아가 감’ 등으로 표현한 것도 인간사의 어두운 면을 피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똥’과 ‘오줌’을 “크게 편한 것”이라는 의미의 ‘대변(大便)’, “작게 편한 것”이라는 의미의 ‘소변(小便)’으로 바꾼 것은 불결감을 조금이라고 덜기 위한 금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정한 예의와 예법이 유지되고 요구되는 사회에서는 함부로 대접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 금기의 대상이 되어 그들에 관련된 명칭들도 더불어 금기시된다. 이에 따라 그 관련 명칭들은 예의적 표현으로 대체된다. 그 대체 과정에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조상, 어른, 손윗사람 그리고 심지어 손아랫사람의 본명을 피하고 그것을 위한 특별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도 이러한 예절적 표현을 위한 금기에서 말미암는다.

의미 변화의 결과

특정 단어가 의미 변화를 겪고 나면 반드시 결과적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 양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의미 적용 범위가 변하는 것과 의미 가치가 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미 적용 범위의 변화에는 축소와 확대, 그리고 의미 가치의 변화에는 경멸적 변화와 개량적 변화가 있다.

① 범위의 변화

의미 적용 범위의 변화에는 축소와 확대가 있다. 의미 축소는 단순히 지시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사회적 유효 범위가 좁아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같이 일반 사회의 언어가 특정 사회로 편입되어 일어나는 의미의 특수화는 의미 축소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얼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형체”에서 “안면”으로 변한 것, ‘어시(>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인간, 동물의 어미”에서 “동물의 어미”로 변한 것은 지시 의미의 범주가 좁아져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후자와 같은 의미 적용 범위 축소는 유의 경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父”에서 “天主”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특수 사회로 넘어와 쓰이면서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이며, ‘표리’라는 단어가 “물체의 속과 겉”에서 “옷의 겉감과 안쪽”이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일반 사회에서 궁중 사회로 쓰임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특수화한 경우이다. 의미 축소가 일어나면 지시 범주나 사회적 유효 범위는 좁아지지만 부가적 특징이 첨가됨으로써 그 의미는 보다 풍부해진다. 곧 외연은 줄지만 내포는 상응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의 확대는 기존의 의미가 변화한 후 지시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는 추상화 내지 일반화보다 구체화와 특정화를 지향한다는 논리에서 의미의 확대를 그 축소보다 덜 흔한 경향으로 이해하여 왔으나 사실은 축소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새로운 개념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그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단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되 기존 의미의 지시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회에서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일반 사회로 끌어들여 쓸 수도 있다.

‘겨레’가 “친척”에서 “민족”으로 의미가 변한 것, ‘아주머니’가 “고모”에서 “중년 여인”으로 의미가 변한 것 등은 지시 의미의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일어난 의미 변화이고, ‘단도직입(單刀直入)’이 “생각과 분별과 말에 거리끼지 않고 진경계로 바로 들어감”이라는 불교적 의미에서 “문장이나 언론의 너절한 허두를 빼고 바로 그 요점으로 풀이하여 들어감”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변한 것은 사회적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일어난 의미 변화이다. 의미가 확대되면, 의미가 다양한 사물에 적용되므로 외연은 증가한다. 반면 의미를 규정하는 성분들은 줄어들어 내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② 가치의 변화

언어는 인간 심리 작용에 지배되고 또 그 언어로 표현되는 지시물까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작용에 지배되는 까닭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독특한 의미 가치를 띠게 된다. 그리고 그 의미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의미 가치는 경멸적(輕蔑的)인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개량적(改良的)인 쪽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멸도 개량도 아닌 중립적 방향에 머물기도 한다. 중립적 방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의 방향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미적 가치는 경멸적인 쪽과 개량적인 쪽의 양극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경멸적 의미 변화는 중립적 의미 가치가 부정적 의미 가치로 변하거나, 긍정적 의미 가치가 부정적 의미 가치로 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전자가 경멸적 발전의 일반적 유형이다.

특수 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일반 사회로 적용의 범위를 넓힐 때 의미의 일반화와 더불어 의미 가치의 하락까지 경험하기도 한다. 특수 사회에서 유지하던 고유한 미적 가치는 그 단어가 일반성을 띠면서 희박해지거나 보다 낮은 단계로 떨어질 수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호칭어의 일반화(예: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역사적 존칭어의 일반화(예: 양반, 영감, 첨지, 주사), 전문용어의 일반화(예: 외도하다, 육갑하다)가 여기에 속한다.

유의 경쟁의 결과 경쟁력이 약화된 단어의 의미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다. 친족어휘 ‘아버, 어미, 할미’ 등이 평칭에서 비칭으로 가치 체계가 변동된 것도 이들과 대응되는 ‘아버니(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등과

의 유의 경쟁의 결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들 ‘아비, 어미, 할미’ 등이 평칭에서 비칭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아버니, 어머니, 할머니’ 등과 같은 ‘-니’형 지칭어들이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유의 경쟁이 경쟁 단어의 비칭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 친족어휘가 평칭 대 존칭의 이원적 대립에서 비칭 대 평칭 대 존칭의 삼원 대립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단어가 지시하는 의미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때, 그 지시 내용과 관련된 연상이 단어의 미적 가치까지 그러한 것으로 규정해 버릴 수 있다. ‘아하다’라는 말은 “점잖지 못하고 천하게 아리따다”라는 부정적 내용의 지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지시 내용과 결부된 좋지 못한 연상이 단어의 미적 가치를 낮게 규정해 버렸다. ‘저주하다’라는 말의 미적 가치도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 또한 지시 의미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정 단어가 어휘 형성에 참여하여 접두사나 접미사로 기능을 할 때, 이것이 파생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기도 한다. ‘개-(개죽음, 개새끼), 돌-(돌배, 돌팔이)’와 같은 접두사나 ‘-질(계집질, 서방질), -치(갈치, 서우치)’와 같은 접미사가 그러한 예이다.

개량적 의미 변화는 부정적인 의미 가치가 긍정적인 의미 가치로 바뀌거나 중립적인 의미 가치가 긍정적인 의미 가치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 과격, 불쾌, 불결한 원래 의미의 미적 가치가 둔화되거나 제거됨으로써 개량적 방향으로 의미 가치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공갈’이나 ‘영악하다’의 의미 변화는 과격한 의미가 둔화된 결과 의미 가치가 상향 조정된 예에 속한다. ‘공갈’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사람을 협박함”이

라는 본래 의미와 관련해서는 과격한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변하여 제한적으로 쓰이면서 본래 의미가 갖고 있던 과격한 의미는 상당히 떨어진다. ‘영악하다’는 “모질고 사납다”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이해에 밝고 열성이 대단하다”, 더 나아가 “똑똑하다”라는 의미로까지 변해 가면서 과격한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 쪽으로 순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겸양을 나타내는 한자어들이 본래의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겸손의 자질을 포함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개량적 의미 발전을 경험하기도 한다. ‘소생(小生), 소자(小子), 가돈(家豚), 소첩(小妾)’ 등과 같이 자기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을 낮추어 표현하는 단어나, ‘줄고(拙稿), 폐사(弊社), 누옥(陋屋)’ 등과 같이 자기와 관련된 사물을 낮추어 표현하는 단어가 이들이다. “집의 돼지”에서 “아들”로 의미가 변한 ‘가돈’, “누추한 집”에서 “자기 집”으로 의미가 변한 ‘누옥’의 미적 가치는 분명히 개량된 쪽으로의 변화이다.